

“우크라서 북한 장교 6명 사망”…북한의 러시아 파병 첫 확인

(러 점령지 도네츠크 인근)

우크라 매체·러시아 단체 등 발표
“미사일 공격에 숨겨…부상도 3명”
정부 “모든 가능성 들여다보는 중”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을 타깃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전날(3일)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3명 이상의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애국조직을 자칭하는 ‘크렘린 시크릿’도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우호군인 북한군 장교단이 있던 시험장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며 “사



포병군관학교 찾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포병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총합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식탄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스1]

망한 20여 명 중 6명은 북한군 장교였고, 부상당한 북한군 3명은 모스크바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파병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7월 일본 요미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됐느냐는 물음에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될 수 있다”며 “전투부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계기로 거론됐던 북한군 파병설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해당 조약 제4조는 “북한과 러시아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안팎에선 그간 북한이 러시아의 거듭된 요구에 비전투 인원을 중심으로 파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수출 무기 운송을 후속 지원하는 인원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전쟁 지역 복구를 위해 북한군 공병부대가 투입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소속 인력이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북·러 양측의 군사 협력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전투부대 파병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받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KN-23과 KN-24 등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기도 했다.

이근평 기자

12차 SMA, 2026년~2030년 유효

▶ 1면 ‘방위비’에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타결된 11차 SMA의 경우 매해 인상되는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했다. “우리 국력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라면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총액은 2020년 1조389억원에서 2025년 1조4028억원으로 35% 뛰었다. 연평균 상승률은 6.2%였다.

하지만 방위비와 국방비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는 큰 결함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늘어날수록 연합방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상호 보완적인 두 비용이 함께 올라가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데다 한국 측의 부담이 갈수록 지나치게 커진다

는 이유였다.

하지만 12차 SMA에선 과거 7·8차 SMA 당시 적용하던 물가 연동 방식으로 이를 되돌렸다. 협정 첫해인 2026년 총액(1조5192억원)을 시작점으로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CPI 증가율을 반영해 총액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2025년 CPI를 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 CPI인 2%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협정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1조6444억원으로 총액이 증가한다. 첫해(2025년)와 비교해 17.2% 뛰는 셈이다. 연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3.2%로 직전 11차 SMA(6.2%)의 절반 수준이다.

만약 12차 SMA에서도 11차 때처럼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를 연동했다면 큰 폭의 총액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2015년부터 지난 10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5.25%였다는 점을 감안, 매해 국방비 증가율을 5%로 적용할 경우 협정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방위비가 1조846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협정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물가 연동 방식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약 2000억원을 더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협정에선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제도입해 5%로 설정했다.

외교부는 “이전 협정과 비교해 12차 SMA 기간 중 전체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분야의 성과도 있었다고 정부는 자평한다. 대표적인 게 역외자산 정비 비용 폐지다.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한다”고 협정에 명시했다. 방위비 분담의 목적 자체가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를 위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12차 SMA에서도 첫해인 2026년에 적용되는 인상률은 8.3%로 1조5192억원에 달한다. 한국에 무리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2020년 5월) 한국에 13억 달러, 당시 한화 1조5900억원을 요구했는데, 결국 이런 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026년 분담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한국이 요구해온 ‘소요형’으로의 전환은 미측의 반대로 이번에도 무산됐다. 한국이 택한 ‘총액형’은 방위비의 총액부터 우선 합의한 뒤 지출 항목을 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전 세계에서 한 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SMA를 맺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은 지출 항목을 합쳐 총액을 산출하는 ‘소요형’을 따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정영교 기자

▶ 1면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헬린’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노

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하는 민생 행보로 맞붙을 뛴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또 하나의 핵심 승부처다. 해

리스 부통령은 주민·구조대·자원봉사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씬터와 음식 등 필요한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 도로 보수 등 교통 부문에 사용할 긴

급 재해 복구자금 1억 달러(약 1348억원)를 승인해 해리스 부통령을 축면 지원했다.

위성턴=김형구 특파원

☁️ **워싱턴 날씨 (°F)**



10월 7일(월) 73~52

8일(화)	71~49	☀️	11일(금)	70~52	☀️
9일(수)	71~49	☁️	12일(토)	79~57	☀️
10일(목)	67~44	☀️	13일(일)	76~60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위,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재개발/분할/위장/리모델링
SOLD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위 Larry Hogan for U.S. Senate in 2024

한인 지지자들이 (Korean-Americans for Hogan)
래리 호건 주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보다 우리의 가치와 미국에 대한 공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었을 때,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근절에 앞장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했으며,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 공공 안전 강화, 국경 보호, 은퇴자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세금 감면과 경제 회복,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 보장 등 현재 미국과 메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것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가 아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8년동안 제가 주지사로서 해왔던 일이며, 상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11월 5일 (화)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과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락처 (240) 459-2128



PAID FOR BY HOGAN FOR MARYLAND INC

펜실베이니아 승자가 마지막에 웃는다

7개 경합주 중에서 가장 중요

양당 대선 캠프에서 펜실베이니아를 대상으로 인력과 자금을 집중하며 사활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 7개의 경합주(펜실베이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중에서도 대서양 연안 3개주(펜실베이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승자가 제47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승자가 마지막에 웃을 것이라고 점쳤다.

양당 대선 캠프는 9월 이후 펜실베이니아에 1억달러 이상의 정치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에 걸린

선거인단은 20명으로 7개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고, 역대 7번의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 승자가 최종 당선됐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연방상원 100명, 연방하원 435명, 워싱턴 DC 3명)으로 매직넘버는 270명이다. 조나선 마틴 정치평론가는 “만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한다면 유사한 전쟁터인 노스 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모두 승리해야 그나마 기대를 걸만 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경합주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펜실베이니아를 교두보 삼는다는 뜻이다.

양당 후보들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패배한다면 네바다와 애리조나 두 곳에서 모두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

따른다. 2020년 대선에서는 재검표 운동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8만표 차이로 승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선거에서 노스 캐롤라이나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조지아에서 승리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태생과 카톨릭 신앙 전통을 내세워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나, 해리스 부통령은 아무런 연고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어려운 메디케어 문제 해결해주며 쾌감”



동부 최대 한인 보험사인 스마트 보험은 지난 9월 유나이티드, 에트나 등 미국 메이저급 건강보험회사와 4개국 에이전트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25 킥오프 행사를 타이슨에 위치한 마지아노 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해 최고의 에이전트를 시상하며 각 보험사의 2025년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을 발표하는 자리로, 최고의 에이전트는 마이크 리(이영만) 씨가 선정돼 수상했다. 이 씨는 한국 전투헬기 조종사로 22년 군 복무 후 예편하고 2005년 도미했다.

이 씨는 “오랜 군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가운데 지난 2016부터 보험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면서 “한인 시니어분들이 메디케어 분야에 취약함을 느껴 메디케어 건강보

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중에, 특히 한인 시니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받지 못했던 각종 베네핏 등을 찾아 알려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도 이영만 에이전트는 “믿어준 시니어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특히 꼬여있는 메디케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었을 때는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보험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이영만 대표는 함께 일할 에이전트를 모집하고 있으며, 각 단체나 교회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메디케어에 대한 지식 등을 전파하고 있다.

▷문의: 703-679-2010

홀리스도 ‘고령화’

북VA·리치몬드 지역

노숙자 절반, 55세 이상

워싱턴 지역 홀리스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홀워드 VA에 따르면, 버지니아 리치몬드와 북버지니아 지역 홀리스의 44%가 5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버지니아 대도시 권역의 홀리스는

2023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이 55세 이상 고령자 계층이었다.

1990년대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홀리스의 11%만이 55세 이상 고령자였으나, 팬데믹 이후 이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벤자민 테레사 교수는 “고령자들이 팬데믹 이후 급증한 렌트비와 물가 등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면서 “이들이 주택 차압과 아파트 퇴거 등의 희생양

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등에 의존하는 고령자들은 물가와 렌트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소득 인상을 탓에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레사 교수는 “팬데믹 이후 은퇴 시기를 미루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60대와 70대 고령자가 늘고 있으며, 직업을 잃을 경우 홀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너무 무서워서 쫓다”

타이슨스 비무장 절대범

살해 경찰관 재판 시작

버지니아 타이슨스 쇼핑몰에서 매장 절대범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지난 2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웨슬레이 쉬프렛 전 경찰관은 “용의자 티모시 존슨(37·사진)가 도주하다가 발을 헛디더 한 바퀴 구른 후에 무릎 걸음 상대가 됐을 때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했다”면서 “용의자는 자신의 허리춤



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했다”고 밝혔다.

쉬프렛 전 경찰관은 “어느 순간 용의자와 눈을 마주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용의자의 총을 볼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는 경찰 훈련 과정에서(지체할 경우) 범죄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교육받는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의 신체부작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피해자가 피고와 얼굴이 마주치면서 허리춤에 손을 대는 순간과 피고의 총격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정확하게 1초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쉬프렛 전 경찰관은 작년 2월 버지니아 타이슨스 쇼핑몰의 노르드스톰 백화점에서 켄글래스 두 벌을 훔치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아무런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방위적 총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기를 저하시켜 시작하는 사례만 늘릴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조지메이슨 대학 인기 치숫아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 인기



운티, 알렉산드리아 시티 공립고교 14곳을 대상으로, GPA 3.25 이상 학생 1100명에게 이 프로그램 수혜를 약속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매년 200명 이상이 이를 수락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입학신청서 비용과 에세이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GMU)에 입학하는 신입생 학력 수준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GMU의 지난 학기 신입생 모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신입생의 28%가 GPA 4.0 이상이었으며, 71%가 3.5이었다. 전체 버지니아 고교 12학년의 16.5%가 GMU에 지원했다. 이번 학기 GMU 학부등록생은 4만명으로 버지니아 주립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다.

GMU는 워싱턴 지역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입학전형 절차를 간소화한 디렉트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페어팩스, 프린스 윌리엄 카

US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의하면 GMU는 전국 종합대학 순위 조사에서 109위를 차지했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89%로 매우 높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생명과학 등의 전공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김윤미 기자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BMC
Korean CBMC of North America

CBMC 비즈니스 성장 세미나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1부 : 2024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BOI 리포트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심각한 처벌이 따릅니다.
- * 벌금은 하루당 \$5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00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부 : CBMC란 무엇인가?

강사 안일송 변호사 / 김경대 회계사

일시 10월 25일 (금) 오후 6시 30분

장소 MARYLAND INNOVATION CENTER
6751 Columbia Gateway Drive
Columbia, Maryland 21046

문의 kyptaxinfo@gmail.com
240-252-9825 (MD)
703-303-5542 (VA)

신청 http://promo.websiteinnovator.com/cbmc-seminar
혹은 전화기를 사용하여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후원: KCBMC 동부연합회 - 엘리콧시티, 락빌, 디씨, 콜럼비아, 센터빌, 페어팩스 Y지회

3P CONSULTING
PURPOSE • PASSION • PROFIT

욱일기 안 치우는 박물관 황당 해명

“일본해·욱일기는 표준 따른 것”
흑인 기마상 철거와 다른 태도
표준 관련 추가질의 응답 안해

뉴욕자연사박물관이 ‘욱일기’(일본 전 범기)와 일본해 표기 관련 “당시 상황을 드러내며 표준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2022년 흑인 인권 운동의 여파로 루스벨트 대통령, 인디언, 흑인의 대형 기마상을 철거하는 등 변화하는 시류에 맞추겠다고 밝힌 입장과 사뭇 다른 태도다.

켄드라스나이다 박물관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지난달 본지에 “회신이 너무 늦어 미안하다. 박물관 측의 공식 답변을 전한다”며 연락을 취해왔다. 지난 4월 본지가 제기한 문제의 장소는 ▶ 2층 메인 로비 티켓부스 왼쪽 벽화의 욱일기·일본해 표기 ▶ ‘Asian People’ 역사관 안내판의 일본해 표기 등 세 곳이다.

먼저 벽화에 대해 박물관은 뉴욕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념하며 그린 기념물이며 뉴욕시 랜드마크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벽화를 그린 시기는 1935년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보수 작업 당시에도 이를 그대로 재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한인사회에선 보수 작업을 하던 서도 욱일기를 다시 그렸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박물관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박물관은 본지에 “랜드마크로 지정됐다는 건 건축·역사문화적으로 보



뉴욕자연사박물관 2층 메인 로비의 티켓 부스 왼쪽에 있는 벽화 속 욱일기.

존해야 할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어떠한 현대적 고려도 없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5년 일본과 조약을 맺는 걸 그린 것으로, 그의 공적 삶에서 중요한 장면을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해 표기에는 “알려져서 고맙다”면서도 “이 표기를 쓸 때 우리는 미디어와 국제 조직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주장한 표준 관련한 추가 질의에는 3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박물관은 강령을 통해 “다양성·평등성·포용성을 강조한다”며 “서구적 시각에서 표현한 박물관의 전시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 전세계 박물관의 문화적 맥락에 반하는 것, 인종차별 및 민족중심적 관행에 대한 비판 등도 검토하며,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관점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 같은 가치들은 더 이상 오늘날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와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그 예시로 루스벨트 대통령 동상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담은 기획물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을 갖는 도시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강령은 지난 2019년 6월 이사회에서 채택됐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동주해외작가상에 서연우씨

‘재단사’ 등 시 9편 선정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시인 서연우(사진)씨가 제9회 ‘동주해외작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주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한글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윤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서씨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시인 윤희경씨와 공동수상했다.

서씨의 수상작은 ‘재단사’ 외 9편으로, 시상식은 내달 30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석주 시인은 서씨의 작품에 대해 “한 별의 옷을 짓는 서사가 만연체와



쓸쓸함, 그리고 화려함이 맞물려 좀 촘촘하게 직조된 작품”이라며, 그 서정성과 정밀한 묘사를 높이 평가했다.

서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되어 벅차고 기쁘다”며 “시가 메달랐던 언어를 돌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힘을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시집 ‘빛소리가 길고양이처럼 지나간다’를 출간했으며, 현재 미주 한국문인협회 뉴미디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운재 기자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전시회 전야제 미주중앙일보와 건축 사무소 앤드모어파트너스가 공동주최하는 한인타운 발전 조감 전시회가 오늘(4일) 공식 오픈한다. 미주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은 이 전시회는 LA지역 EK 아트 갤러리(1125 Crenshaw Blvd)에서 9일까지 열세 동안 개최된다. ‘LA 한인타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전시회는 한인타운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한인타운 각 거리별 특성을 분석해 과거 50년의 발전을 조명하고 향후 50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참석자들이 전시장의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코스트코 플래티넘 바도 판매

스위스 제조 1온스 1089.99불
투자자들 “금보다 수익 낮아”

장고형 소매업체 코스트코가 금과 은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자 플래티넘 바(사진)도 추가했다.

CBS는 “코스트코가 귀금속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1온스 플래티넘 바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보도했다.

플래티넘 바는 999.5 순도로 판매가는 1089.99달러다. 구매 한도는 1회, 최대 5개로 제한했다. 귀금속 산업 국제무역협회인 런던보리온마켓협회(LBMA)에서 인증받은 스위스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현재 코스트코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며 뉴욕, 유타, 네바다, 루이지애나, 푸에르토리코에는 배송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플래티넘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익률이



금만 못하단다 판매가 격도 시장가보다 소폭 웃돌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팩트셋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플래티넘의 현물 가격은 약 16% 올랐지만, 금은 42% 상승했다. 현재 온스당 1004달러로 코스트코 판매가격은 시장 가치보다 약 8% 높다. 금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시장 변동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이자 안전자산으로 오랫동안 선호됐다.

지난해 8월 출시한 순도 24캐럿인 1온스 골드바가 품질 사태까지 이어진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업체는 금 판매 힘입어 실버 바를 추가한 후 매달 회원들에게 최대 2억 달러 이상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웰스파고는 추정했다.

이은영 기자

남부 국경 넘는 망명신청자 급감

바이든 행정명령 등 영향 분석
5만8038명 체포, 77% 감소

최근 들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남부로 들어온 망명신청자 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정부 통계를 분석·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경 순찰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와 접촉, 체포한 건수는 총 5만80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2월 기록이었던 24만 9741건에서 77% 급감한 수치다. 통상 국경순찰대로부터 체포된 망명신청자는 일시적으로 구금돼 망명을 허가받는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

는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망명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중에는 멕시코 출신 망명신청자가 지난 8월 기준 2만68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 5만6240건에서 52% 줄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경순찰대가 과테말라 출신 망명신청자를 체포한 횟수는 3만4693건에서 6420건으로 81% 감소했고, 온두라스 출신 망명신청자의 국경체포 건수는 1만8993건에서 4465건으로 76% 줄었다.

엘살바도르 출신 체포 건수는 5818건에서 2076건으로 64% 줄었다. 이외

에도 베네수엘라·쿠바·아이티 등 남부 국경과 거리가 있는 국가 출신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건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지난 8월 1472명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국경순찰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 12월(5951건)과 비교하면 75% 줄어든 수준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측 양국의 국경정책 변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연합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파독 광부·이민 3세 ... 축구로 다진 ‘한인 팀워크’

문체부장관배 한민족축구대회 20년
홍천서 개최, 해외 12개국 30개팀
김성수 회장 1회부터 사재 털어 지원
이덕화 명예대회장도 분위기 띄워

10월 5일은 2007년 제정된 ‘세계 한인의 날’이다. 이 날을 전후로 재외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다지는 축제가 있다. 2004년 시작돼 20년 째를 맞은 ‘문화체육부장관배 한민족축구대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3년간 중단된 걸 빼고는 매년 이어졌고, 올해는 10월 3~6일 강원도 홍천에서 제17회 대회가 열리고 있다.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 기간과 딱 맞췄다.

올해는 해외 12개국 30개 팀과 국내 13개 팀이 출전해 청년부·중장년부·실버부로 나뉘는 경기를 치렀다. 70세 이상이 출전하는 실버플러스부는 여성 팀과 한 조에서 경기를 벌인다.

첫날부터 선수들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상대를 열싸안고 격려했다. 이 대회를 얼마나 고대해 왔는지 서로가 알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팀 소속 신필범 선수는



“이민 간지 30년 만에 한민족축구대회 덕분에 고국에 올 수 있었다. 고향인 서대문 일대가 너무 달라져 당황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고국의 모습을 확인하며 뿌듯했다”고 말했다. 암 선고를 받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회에 출전, 37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부부도 있다.

대회 초기에는 파독 광부 팀, 아르헨티나 이민자 팀 등 재외동포 1세대가 참가했다. 최근에는 이민 2, 3세대가 부모님 나라에서 열리는 축구 축제에 참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 시애틀 팀 골키퍼 에드워드 유는 “대회 전에 비무장지대(DMZ)

에 다녀왔다. 남북 분단 상황, 한국의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참가자는 왕복 항공권만 부담한다. 대회 기간 숙박비와 운영 경비, 심판비 등은 전액 (사)전세계한민족축구협회(회장 김성수)가 책임진다. 2015년부터 문체부와 개최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했지만 사실상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대회를 이어 왔다. 선수단과 심판진 등 1000명에 달하는 참가자의 숙식을 해결하는 데만도 3억원 남짓한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 충주 출신인 김 회장은



1 홍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한민족축구대회에서 일본 팀(파랑)과 미국 캘리포니아 팀(빨강)이 맞붙고 있다. 2 이덕화 명예대회장(왼쪽)과 김성수 전세계한민족축구협회장.

주택건설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무작정 상경,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KBS 텔런트로 ‘한명회(1994)’ 등 10여 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드라마에서 한명회(이덕화)의 집사 역할을 맡았던 그는 촬영 막간에 수염도 떼지 않고 짚신을 신은 채 출연진끼리 축구 시합을 할 정도로 축구광이었다.

김 회장은 2004년 연예인 축구단을 이끌고 시카고 공연을 갔다가 한민족축구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멕시코 동포 몇

개 팀이 모여 축구대회를 했는데 거창하게 ‘한민족축구’라고 이름 붙였다. 연예인 공연에 교민 1만명이 몰렸다. 그만큼 정에 굶주렸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대회 후 교민들이 내 손을 잡고 ‘이 대회를 꼭 지속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동포들이 모이면 어차피 한국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뒤에서 힘껏 돕겠다’고 해서 열렬결에 맡게 됐다”고 김 회장은 회고했다.

초창기엔 이런저런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모처럼 고국 방문에 들뜬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을 먹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다. 김 회장은 “지금은 모든 경기에 앰블런스와 구급요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혹시라도 경기 중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조사했다”고 말했다.

3일 저녁, 한우축제 현장인 홍천군 도시산업공원 토리숲에서 대회 개회식이 열렸다. 1000여 명의 대회 참가자와 홍천군민의 함성, 수백 명이 한우를 굽는 연기로 대회는 후끈했다. 보통 지역행사의 축사는 대독(代讀)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트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등이

직접 나와 축사를 했다. 조현재 데 거창하게 ‘한민족축구’라고 이름 붙였다. 연예인 공연에 교민 1만명이 몰렸다. 그만큼 정에 굶주렸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대회 후 교민들이 내 손을 잡고 ‘이 대회를 꼭 지속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동포들이 모이면 어차피 한국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뒤에서 힘껏 돕겠다’고 해서 열렬결에 맡게 됐다”고 김 회장은 회고했다.

초창기엔 이런저런 사건사고도 발생했다. 모처럼 고국 방문에 들뜬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을 먹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다. 김 회장은 “지금은 모든 경기에 앰블런스와 구급요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혹시라도 경기 중 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조사했다”고 말했다.

3일 저녁, 한우축제 현장인 홍천군 도시산업공원 토리숲에서 대회 개회식이 열렸다. 1000여 명의 대회 참가자와 홍천군민의 함성, 수백 명이 한우를 굽는 연기로 대회는 후끈했다. 보통 지역행사의 축사는 대독(代讀)하거나 영상 메시지를 트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등이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

‘8·15 통일 독트린’ 홍보 결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3일 폐막했다. 각국 한인회 및 대륙별 총연합회 소속 재외동포 350여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비전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다짐 등이 담긴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

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며, 이에 기반한 ‘8·15 통일 독트린’을 국제 사회와 거주국 사회에 적극 알림으로써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정체성 강화,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및 모국 기업과의 경제협력 강화, 우편투표·전자투표 등 재외선거 방식 개선 등이 필요

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포들은 2박3일 동안 운영위원회, 대한민국의 발전사 및 한국 대중문화이 세계적 성공에 관해 이야기한 ‘나의 조국, My Korea’,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통일부 장관 강연 등 정부와의 대화, 지역별 현안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상덕 청장은 폐회식에서 “대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은 재외동포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고, 차세대 육성 등 동포사회와 모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가운데)이 대회 공동 의장인 나인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왼쪽)과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에 공로패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맞춤 융자도 함께 고민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INC MEDICINE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 미국 성조가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0823; FL ML2502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젤렌스키, “독일에서 승부수” 우군 50여개국에 ‘승전계획’ 제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독일에 모이는 50여개국 지도자에게 전쟁 승리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AFP 통신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는 12일 독일의 랍슈타인 미 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정의롭게 종식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인 승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50여개국 지도자가 모이는 자리다.

이들 국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위한 협의체 우크라이나방위연합그룹(UDCG)을 결성하고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승전 계획을 제시하고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원한 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과 바이든 대통령.

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 대선을 3주가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의 그간 지원 기조가 뒤집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라고 말했다.

“석유업계, 트럼프에 IRA 전면 폐지 반대”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엑손모빌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군인 이들은 애초 IRA 제정에 반대했으나 IRA에 따라 자사의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회사인 옥시덴털 페트로리엄의 비키 홀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자사의 막대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이 업체는 텍사스 서부에 13억 달러 규모의 첫 포집 공장을 건설 중이며 향후 몇 년 내 수십 개의 공장을 더 세울 예정이다.

엑손모빌 역시 트럼프 대선 캠프에 IRA의 일부를 보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대 석유 메이저 회사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은 탄소 포집, 수소, 바이오연료 등 다른 저탄소 기술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계획의 실행은 IRA의 세금 공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대기업인 필립스66도 의회에 자사 사업을 위해 IRA의 세금 공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식용유, 식물성 기름, 지방 등으로 제조되는 이 회사의 재생가능 연료

는 세금 공제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그린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 스캠’(scam·사기)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그는 특히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석유 시추(drill) 등 에너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수차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IRA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남부서 총격에 경찰 1명 사망

이스라엘 남부 베에르세바에서 6일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구조당국은 버스정류장에서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운데 5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이스라엘 국경경찰 소속 19세 여성 경찰관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용의자를 사살했으며 이번 총격을 테러 공격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용의자를 베에르세바 북동쪽 베두인족 마을 출신의 29세 이스라엘 국적자로 확인했다.

용의자는 2015년 이 지역에서 총격을 벌인 테러범의 친척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베두인족은 과거 유목생활을 하던

아랍계 소수민족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과한 2명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자국 기습 1년을 맞아 테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상대 작전을 계속하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 잔존세력을 소탕한다며 가자지구도 공습했다.

AFP통신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자발리아에서 작전능력 재건을 시도한다는 정보에 따라 전날 이 지역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베에르세바 총격사건 현장.

공격 기반 해체 작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이슬람지하드(PIJ) 산하 알쿠드스 여단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자국으로 넘어간 발사체 가운데 1발은 요격했고 나머지는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영국해협 건너 하루 973명 불법입국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 땅에 도착한 불법 이주민이 5일 하루에만 1천명 가까이 달해 올해 일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5일 17척의 보트를 타고 총 973명의 이주민이 영국에 도착했다. 직전 일일 최고치는 지난 6월18일 882명이었다.

하루에 1천명 가까이 영국에 도착하

면서 올해 해협을 건너온 이주민은 총 2만6천612명으로 늘었다.

영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영국에 도착한 이주민의 18%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었으며 13%는 이란, 10%는 베트남인이었다. 튀르키예(10%)와 시리아(9%)가 그 뒤를 이었다.

“허리케인 강타 대선 경합주에 긴급지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미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헬리’으로 큰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한 긴급 재해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5일 헬린으로 손상된 노스캐롤라이나의 도로 보수 등 교통 부문에 쓸 긴급 재해 복구 자금으로 1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부티지지 장관은 헬린의 타격을 받은 다른 주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최고 시속 225km의 4등급(전체 5등급 중 2번째로 높음) 허리케인으로 미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헬린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2005년의 카트리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허리케인 피해지 노스캐롤라이나 찾은 해리스.

이번 지원 발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방문해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헬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재해 지역을 시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1월5일 대선 결과를 좌우할 7대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와 더불어 가장 치열하면서도 중요한 격전지로 꼽힌다.

독거노인 쌀 전달 행사 후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 명절 추석 행사 결산 보고 (2024년 9월 17일) 감사 최희대

수입 내역 (후원자)	금액	지출 내역	금액
1. 미주 총연 한인연합회 (정명훈 회장)	\$500	1. 쌀구입 100 포 (15LBS)	\$1,110
2. 한미여성재단 (이사장 박미숙)	\$500	2. 후원 광고 및 결산보고 광고	\$850
3.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김진아)	\$300	3. 행사후 노인 아파트 리더 및 임원 식사	\$230
4. MD 아리랑 노인복지센터	\$300	4. 행사후원 인쇄물 발송	\$190
5. 사임당 소사이어티 (장세희 회장)	\$300	5. 노인복지센터 수박 배달	\$200
6. 강수자 (노인회 이사)	\$200		
7. 석은옥 회장 (강영우박사 재단)	\$100		
8. 글로벌 어린이재단 VA 지회장 (김남숙)	\$100		
9. 김용하 (MD 몽고메리 회장)	\$100		
10. 이상주 (노인회 사무총장)	\$100		
11. 최충명 (필라델피아 목사)	\$50		
12. 무명	\$200		
합 계	\$2,750		\$2,580

수입 \$2,750 - 지출 \$2,580 = 잔액 \$170 (* 나머지 잔액 170불은 연말 행사에 사용 예정)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 버지니아 한인회 (VSOK) 회장 우태창

www.koreausnpb.org



제19회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편 34:14 / 마태복음 5:9)

한미 양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2024. 10. 12 (토) 오전 7시

장소

벧엘 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Keynote Speaker

Morse H. Tan

Ambassador

Senior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Law & Government, Liberty University



주최: 워싱턴 한미 국가조찬기도회

www.koreausnpb.org / P.O. Box 1781, Annandale, VA 22003

연락처 : jsu2000@gmail.com / Cell : (703) 844-0355

고문: 류응렬 목사 | 회장: 정승욱 | 이사장: 서옥자 | 행사준비위원장: 윤필홍

- 자문위원: 백순, 정세권, 박주용, 변해롤드, 박상근, 최정선 | 감사: 손기성 목사 | 총무: 안조이 | 서기: 손윤희 | 회계: 김진이
■ 실행위원: 김영선, 장미원, Abbott Koehler
■ 협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메릴랜드한인회
■ 후원: 북미주 KCBMC 총연합회, 굿스폰 선교회, 워싱턴기도연합회, PRASSION, SEED International, 한미나라사랑기도운동연합회, Triple C Wholesalers, Inc., 뽕엘교회

물·전기 바닥, 극한 몰린 가자... “응급실 입구서 환자 죽어가”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그 후 1년

식량·의료 인프라 완전히 무너져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지지부진
NYT “양측 휴전보다 확전 원해”

7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이후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가자 전쟁이 발발했다. 중앙일보는 가자 지구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국경없는의사회(MSF) 활동가들을 지난 달 30일부터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원해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공격 대상 확대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으나, 가자에서는 이미 한계 상황이 도래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대다수 건물이 파괴돼 수술실조차 없고, 병원 발전기용 연료, 전기·물과 의약품 재고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벨기에 출신의 응급 간호사인 카트리엔 클레이스(33)는 “200병상 규모의 병원에 600명의 환자가 몰렸고,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가 줄지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의료 활동 매니저 아흐메드 아부 와

르다박사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도, 손을 씻기 위한 비누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전했다. ICRC 수석기술자 파올라 펠틀라는 X(트위터)에 “목발 등 병원 필수품을 외부에서 구할 수 없어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병원의 열악한 상황은 하마스 지휘부가 병원·난민촌에 은신한다며 이스라엘군이 공습 타깃으로 삼으며 더 악화했다. 가자 남부 도시인 칸유니스 서쪽 해안의 알마와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60㎢ 크기의 인도주의 구역에는 피란민 170만 명이 몰려 있다. 알마와시는 ‘인도주의 구역’인데도 공습을 받았다.

의료진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MSF 소속 의사 하야 하셈 살만은 “매일 포격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거의 100번 가깝게 위치를 옮겼다”며 “환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ICRC 매니저 크리스행어(36)는 “한국이 민간인 보호와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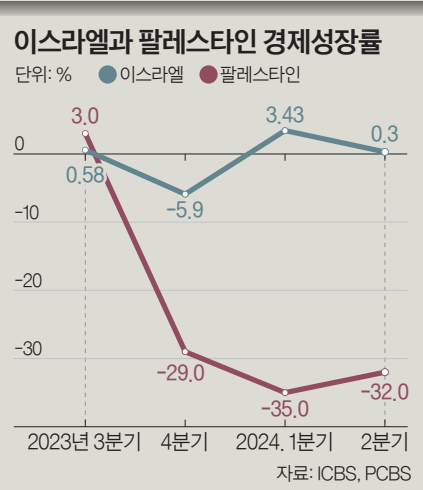
미국이 주도하는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현지시간) 연설에서 가자지구, 레바논, 요르단강 서안, 예멘,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열거하며 “오늘 이

스라엘은 적들에 맞서 7개 전선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이들의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뿐 아니라 친이란 세력 모두를 무력화하는 게 전쟁의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도 확전을 원한다는 분석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하마스는 최근 몇 주간 휴전 협상에 전혀 참여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전쟁이 발생해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병력을 축소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일한·서유진·한지혜 기자



6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베이루트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날밤 이곳을 다섯차례 공습했다. [AP=연합뉴스]



이스라엘 전 총리 “이란 핵시설 폭격 여론”... 중동 위기 더 커지나

(에후드 바라크)

미국 반대에도 독자 공격 가능성**헤즈볼라 새 수장 공습으로 숨진 듯**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핵시설, 석유시설, 군기지에 대한 타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서방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핵시설 공격이다. 이스라

엘은 그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작업을 큰 위협으로 간주했다. 만약 이스라엘이 우라늄 생산 및 농축 공장, 우라늄 광산,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중동 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확전 일로를 걷게 된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전 총리는 4일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사

적 목표물에 대해 상징적 공격도 가능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전망했다.

이란 서부에 집중적으로 위치한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 이란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에 해당하는 하루 약 3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한다. 적든 많은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핵 시설과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기지 등을 타격하는 방안 정도가 그나마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카드다. 공습 등을 동원한 요인 압살 등의 방법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경고나 만류를 따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건 네타냐후 총리 뿐”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와 수도 베이루트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산 나스랄라의 뒤를 이어 헤즈볼라 수장에 오를 것으로 언급된 하심 사피에딘의 경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락이 두절돼 사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레바논에 체류하던 한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은 정부가 급파한 군수송기 KC-330 시그너스-C130J 수퍼 허큘리스를 타고 5일 귀국했다.

박현준·박형수 기자

‘전쟁 1년’ 버티는 하마스... “가자지구 땅굴엔 무기공장까지”

가자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됐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습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하마스가 세종시와 비슷한 365㎢ 면적의 가자지구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 견재한 것은 가자지구 지하를 관통하는 ‘땅굴’ 덕분에다. 5천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땅굴이 고립된 하마스에 ‘생명줄’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전현직 하마스 당국자와 이스라엘군, 미군, 정보 분석가 등 20여명을 인터뷰

해 하마스 땅굴의 실태를 조명했다.

WP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고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오랜 기간 전쟁을 준비해왔다. 지하를 관통하는 땅굴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요새로 탈바꿈시켰다. 외부의 승인 없이도 수천 명이 투입되는 정교한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정치국 위원 중 한 명인 가지 하마드는 WP에 “우리는 어느 날 공급 체질이 모두 단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조공장을 지하화했

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24시간 일했다”며 “단순히 향후 1~2년간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대비했다”고 했다.

이런 땅굴의 실태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이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산 로켓과 미사일을 대량 밀수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란산은 거의 없었다. 대신 농업용 화학물질과 쓰레기 더



하마스 지하터널 조사 중인 이스라엘군

미에서 주운 파이프 등으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작업장이 발견됐고 최대 80%가량이 직접 제조한 무기로 파악됐다.

하마스는 이곳에서 대전차용 급조 폭발물(IED)과 열압력 로켓 추진 수류탄, 중·단거리 로켓 등을 직접 생산했다

고 WP는 전했다. 일부 무기에는 하마스라는 브랜드가 새겨져 있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땅굴은 통신망, 보급창고, 방공호, 야전병원 등의 역할도 했다. 길어도 300마일(약 482km)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 군도 사실상 전체 땅굴 시스템을 파괴할 방안은 없다고 보고 있다. WP는 땅굴이 하마스 1인자인 야히야 신와르에게는 생존을 위한 열쇠라고 봤다.

WP가 인터뷰한 하마스 당국자에 따르면 신와르는 이런 땅굴을 활용해 지난 1년간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하마스 재건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 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아울렛 한미타운+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미타운+mart)와 챔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UCKOO

10월 프로모션

FALL IN CUCKOO

기간 9.27.2024 – 10.29.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10월 내 설치

10월 한정

3 HOT DEALS

SPECIAL GIVEAWAY

\$999 → \$549

+1년치 필터 제공



펫 드라이어

Special Offer 1

특별가 \$449

+1년치 필터 제공



마이크로 버블 클렌저

Special Offer 2

BUY ONE GET ONE 50%



CBT-11030RW

Special Offer 3

*해당 제품과 건수에 따라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일시불 또는 렌탈 계약 SALE

일시불 구매 최대 30%할인

Special Giveaway

렌탈 계약 다운페이 OFF



* 렌탈 건 수에 따른 해당 사은품 증정

안마의자 SALE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 HP 압력 밥솥 증정



Special Giveaway

*3D의 경우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민주적 절차와 제도 경멸…극우정당이 더 위험하다”

“유럽연합(EU) 정치에선 광대들에게 천장이 존재해, 이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게 2021년이다. ‘광대’는 극우 정당을 지칭한다. 빠르게 부상하지만 우스꽝스러운 자기 무능으로 무너진다고 봤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정치적 풍경은 예상과 다르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1당을 차지하는 등, EU 국가 대부분에서 극우 정당이 확장하고 있다. 연정 형태로 집권한 곳도 적지 않다. (그래픽 참조)

세계적 정치학자인 도나텔라 델라 포르타 피렌체 고등사범학교 정치사회대학 창립학장은 이런 흐름에 대해 “현재 진행형인 도전이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자로 참여하는 그와 최근 e메일로 인터뷰했다. 그는 극좌 정당보다 극우 정당이 위험하다고 보는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극우 강세는 진행형, 아직 정점 도달 안 해
-EU에서 극단주의 정당들이 강세다.

“정치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유권자들이 정치스펙트럼의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경향은 없다. 유럽에서 중도우파와 정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사이, 새로운 극우 정당이 등장하거나 기존 정당들이 급진화됐다. 이들 정당은 외국인 혐오적 프레임과 반 이민주의적 시각을 전달하곤 한다. 서구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유색 인종으로 대체된다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들의 영향력은 의제 설정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중도우파만 아니라 중도좌파 정당들도 지지자를 되찾기 위해 반 이민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극우 정당이 집권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부상으로 외국인 혐오적 서사와 반이민 정책, 더 나아가 인종차별 내러티브가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좌파 블록 내에서 극좌파가 힘을 얻었다.

“중도좌파 정당들이 노동계급의 쇠퇴를 극복하려고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며 오른쪽으로 이동, 정치스펙트럼 좌측에 공백이 생겼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촉발되었고 이런 시위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좌파의 새로운 정당들이 이런 주장을 지지하면서 중도좌파에 실망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다. 주류 정당에 실망해 투표하지 않던 유권



도나텔라 델라 포르타 교수는 본지와 e메일 인터뷰에서 극우 정당의 부상에 대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 델라 포르타]

자의 일부, 특히 연속적 위기에서 성장한 젊은 유권자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졌다. 프랑스의 장 뤽 멜랑송이 그 결과다.”(※실제 얼마전 프랑스 총선에서 멜랑송이 이끈 좌파연합이 182석(전체 577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극단주의 정당들의 위세가 이어질까, 아니면 지금이 정점일까.

“나는 유럽에서 극좌파가 위험하다고 보진 않는다. 사회적 권리를 옹호할 뿐, 정치적 또는 시민적 권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극좌파는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에서 정부에 참여했거나 하고 있다. 극우 정당은 다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인종차별적 메시지를 낸다. 도널드 트럼프나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를 예로 들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자유 언론, 독립적인 사법부, 활발한 시민사회 등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경멸하는 데서 나온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비자유주의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극우로 분류되는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는 우려했던 것보다 집권 후 안정적이라 평가 받는다는 건 주류의 시각 아닌가.

“나는 EU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극우 정당의 일관된 특징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들은 EU의 경제정책에 만족하고 있다. 유럽 국경을 강화해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EU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극우 정당들은 EU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내가 멜로니의 정당을 극우로 분류하는 건,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려 해서다. 반이민·인종차별적 담론 외에도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적 보호조치를 삭

유럽 극우 정당 현황

- 집권
- 정부 참여 안 했으나 지지
- 지지율 1위
- 지지율 2위



자료: 폴리코

영토 넓히는 극우정당

인종차별적 메시지 사회통합 저해
불평등 키우고 비자유주의 조장

한국 상황은 셀러브리티 정치 모델

포퓰리즘 기반으로 개인화된 형태
충성파들 경쟁 골몰, 취약한 권력

갑하고 자유시장을 강조한다. 오르반의 비자유적 민주주의 모델을 추종하면서 언론과 사법부 등 민주적 책임기관을 공격하고 있다. 시위할 권리에 대한 매우 가혹한 조치가 취해졌다.”

-극우 정당의 부상이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세계화는 여러 의미를 갖는다. 사회과학에선 글로벌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코스모폴리탄적 시각을 창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극우파는 이에 맞서 국수주의와 배타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여러 극우 지도자들이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는 국가와 시민이 시민권을 구현하고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개입하는 걸 포기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며 주류 정당의 위기, 더 나아가 서구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로 즉각 연결된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들에서 외려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된 건 의외다.

“과거 정당은 시민들에게 참여의 통로를 제공, 대의기관 내에 시민들의 요구를 중재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보장

했다(※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 대중 정당의 쇠퇴로 이 메커니즘이 약화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의 주요 원칙이 다수결이긴 하지만, 토론, 아이디어 교환, 집단정체성 성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해왔다는 걸 상기하게 된다. 이른바 속의민주주의다.”

-현재 정치를 이끄는 에너지는 속의보단 분노·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에 의한 분노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노와 두려움이 집단적 저항을 일으키고 가장 소외된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유동적 근대성은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제기한 개념으로, 현대사회는 과거의 견고했던 사회적 원리들이 녹아버려 불확실하고 예측이 어려워져 위험한 시대이고 개인도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기도, 일관된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델라 포르타 교수가 본 분노와 두려움이 선용된 사례는 반긴축 시위나 페미니스트 운동과 환경 운동, 가자 전쟁 반대 시위 같은 것들이다.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의 승리가 예상되자 유권자들이 나서 좌절시킨 것도 사례로 들었다. “반대로 선동주의 정치가에 의해 말썽한 사람도 쉽게 동원되곤 한다”고 했더니 그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에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지도자들이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며 상대에 대한 극단적 증오가 일상화되는 현상을 두고서다.

역압보단 급진화 막을 공간·정책 필요

-이 또한 포퓰리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 ‘셀러브리티(celebrity) 정치’ 모델을 기반으로 지도자들이 대규모 추종자를 구축하는 건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현상이다. 트럼프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매우 특정한 형태의 포퓰리즘을 구축했다. 포퓰리즘은 종종 성공하기도 하지만, 매우 취약한 형태의 권력이다.”

-왜 취약한가.

“매우 개인화된 형태의 권력으로, 매스미디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조화된 조직 형태의 구축 없이는 공고히 하기 어렵다. 이런 조직 형태는 지도자들의 자아도취적 성격과 충돌하게 된다. 충성스러운 친구들로 자신을 둘러싸지만 이내 이들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는 극우 정당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급진화를 막을 공간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억압은 거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중요한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나는 현재로서는 극좌로부터 위협을 보지 못하며 외려 이들은 요구와 행동 방식도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극우에 대한 인종차별과 ‘타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에 반대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사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지식을 증진하고 극우의 표적이 되는 집단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극우와 동맹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극우 담론을 모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고정애 기자

◆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IPSA는 세계 정치학자들의 대표적 학술대회로, 서울에서 열리는 건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 미·중 경쟁과 전쟁의 위험,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주요 글로벌 현안을 다룬다.

도나텔라 델라 포르타 피렌체에 있는 고등사범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유럽·중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연구한 ERC(유럽연구위원회)의 주요 프로젝트인 ‘민주주의를 위한 동원’을 이끌었다. 2011년 정치사회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에 수여되는 마테이 도건(Mattei Dogan) 상에 이어 2021년 자연과학·공학·인문 사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주는 훔볼트 연구상을 받았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미구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열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동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게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TV TRAVEL CHANNEL 서울미구한방병원 방영

크레딧카드 결제 환영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희소식!

버지니아 한인 최초!

OTC network 승인 SAS 정식 공인 딜러



발은 제 2의 심장!

당뇨신발의 효능

• 혈액순환

• 발 변형 방지

• 혈압 감소

• 무릎 관절염 예방

• 피로도 감소

• 넘어짐 방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한국 브랜드 narzio 당뇨신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오랜 전통의 신고 싶은 신발! 최상품 가죽, 수작업으로 만든 SAS 당뇨신발

역시 한국인이 만들면 원가 다릅니다!

이쁜 기능성 신발! 한국인이 만든 패션 당뇨신발/양말 투박한 당뇨신발은 가라~ 피로가 훨씬 덜 합니다!!

* 혈액순환에 좋은 당뇨 양말도 있습니다.



FDA 승인 당뇨신발 딜러



OTC card로 구매 가능



혜택을 받으세요!

연금 보험

버림받은 목돈 노후보다는 사랑받는 평생연금노후 한국인이 잘못 알고있는 노후 준비- 아까워서 못쓰는 가난한 부자? 여유롭게 평생 쓰는 연금부자가 됩시다!

암 보험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18세~ 89세)

1. 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2. 혹시 느낌이 불안하신 분 (병원 가기전에 가입)

3. 심적 안정을 원하시는 분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만 내려도 5만불 지급 (피부암 제외) 신체 검사 필요없이 바로 가입



그것이 알고 싶다

무료

메디케어 신청 및 변경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의료혜택입니다. 가입기간을 놓치시면 패널티를 내십니다. ”

2025년 확! 바뀐 플랜! 베네핏 제공!

1. 현재 있으신 보험을 다른 플랜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

2. 직장보험에서 퇴직하시는 분

3.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메디케어 플랜 이전

4. 각종 플랜 A, B, C, D 와 서플리먼트

5. 메디케어 있으신 분, 각종 베네핏 제공

6. 노인아파트 입주 상담도 해 드립니다.

7. 의심스러운 병원비 찾아드립니다.

국가대표 메디케어 마이크 리 703.679.2010

출장방문 가능 7535 Little River Tnpk. #204, Annandale, VA 22003 • 13850 Lee Hwy., Centreville, VA 20120

여, 이탈표 갈등 확산...야, 대놓고 탄핵 공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발생한 최소 4표의 이탈로 시작된 여권의 그늘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6일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만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는데, 단결하고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하면서 “지금은 진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의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을 야권이 끊임없이 꺼내 드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민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어쨌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추락한 상태에서 용산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실의 변화 없이 우리가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 가운데에는 “김건희 여자 관련 의혹이 뭐가 더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어떤 의혹이 더 추가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한 사람도 있었다. 이에 한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야권의 의혹 제기를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을 천천히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7·23 전당대회 이후 친한계 의원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이날 국민의힘 곳곳에선 “이대로 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영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뉴시스]

면 공멸”(조선 의원)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당의 단일대오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주장에도 여당에서 발생한 최소 4명의 이탈표를 두고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4일 본회의의 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고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김건희 특검법 투표 결과는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2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누군지 추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

는 등 3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기세를 올린 민주당과 대조를 이뤘다.

친한계와 친윤계는 또다시 서로를 겨눴다. 추석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윤계 만찬’에 참석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은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 후의 끔찍한 시나리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다면 향후 재표결에서 추가 이탈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 가결된다면, 맨 처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은 우리 당 지도부”라고 했다. 김민진 최고위원도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친한계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며 “위헌 소지가 매우 많은 법안인

데 찬성한 의원들이 있던 것은 우리 당의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당 전략본부장은 “일종의 경고성 이탈 표가 나온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시중 여론이 갈수록 악화해 방어하는 데도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진솔한 사과뿐 아니라 향후 활동 계획 등이 나와야 여당도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를 갖고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표결 전날 한 대표와 무관하게 우리 쪽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부결표 단속에 나섰다”며 “이번에 이탈한 건 (친윤계·친한계가 아닌) 중간과 의원들일 가능성이 크다. 용산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비윤계 의원 사이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자 문제를 일단락해야 한다” “김 여자 사과마저 타이밍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상황 인식과 해법을 둘러싸고 건건이 반목하는 친한계와 친윤계의 정면 충돌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뇌관은 7일 당 윤리위원회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아주 극단에서 있는 좌파 유투버에게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당 윤리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 일각에선 윤리위가 구성되면 그간 한 대표에게 비우호적이던 당 총선 백서특위(조정훈 위원장)가 일부

자료를 김 전 행정관에게 넘겨줬는지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지도부의 움직임에 비한계는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는 건 좀생이나 할 짓.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 밑밥을 덩석 문 꼴”이라며 “개인적 이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웠다. 더 이상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 붓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신지호 본부장은 “나 의원은 그의 진영 범죄가 개인 일탈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그리 잘 아는가. 지금은 차분하게 당의 진상조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3개국 순방길에 오른 윤 대통령의 출국길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배웅했다. 그 시간 한 대표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부산에 머물렀다.

한편 양측의 갈등을 증폭시킨 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SGI서울보증 상근 감사처 사퇴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원 기자

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시작 필리핀 94세 한국전용사에 “감사”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첫 행선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10일에는 라오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참전 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 미국·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7420명)을 파병한 필리핀 전사자(112명)를 추모하기 위해 1976년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헌화 뒤 94세 참전용사 플로렌도 베네딕토씨에게 “기억나시는 것이 없으시나”고 물었고, 베네딕토씨는 “2년간의 파병 기간 울동 전투 등 필리핀 부대가 참전한 주요 전투에서 싸웠다.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고맙다고 사의를 표한 윤 대통령은 이후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교민 200여 명을 만났다. 7일에는

한·필리핀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국 전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공격 위협 발언(지난 2일)에는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의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에 위해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과 관련해선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박태인 기자

의료계 5개 단체 “의대생 휴학은 자유, 국가가 복귀 강제 못해”

의료계는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부정적 반응을 내놴.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무조건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

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 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 단체도 반발했다. 김성근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조건부 휴학 처리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에게 합박처럼 들릴 거 같아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도 못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도 “전공의 사직 처리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아예 군대에 가거나 새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호·남수현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문다혜 만취운전 적발... 여당 “문 전 대통령, 살인과 같다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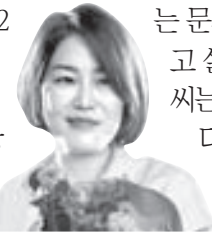
〈문 전 대통령 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사진)씨가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5일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6일 확인해 보니 문씨가 운전한 녹색 캐스퍼 차량이 이태원의 한 술집 앞에서 있던 행인 3명과 아슬아슬하게 부딪칠 뻔한 모습이 보였다. CCTV에선 문씨 차량이 행인들에게로 가까이 붙자 한 행인이 일행의 옷을 잡아 끌어당긴다. 놀란 행

인들이 운전자를 향해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이후 문씨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때기를 반복하는 듯한 모습이 수회 CCTV에 잡혔다.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교차로에선 문씨 차량이 불안정하게 방향을 트는 모습도 보였다.

문씨 차량은 곧이어 오전 2시42분쯤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2차로) 차로에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려 했다. 이때쯤 문씨 차량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문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문씨 차량이 택시의 옆면을 ‘뽕’하고 살짝 부딪치는 정도였다”며 “문씨는 당일 조사 뒤 곧장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문씨가 운전한 차량엔 문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던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까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가 문씨에게 양도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지자 여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관련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번 딸은 이태원 참사 추모 달인데 그 이태원에서 아슬한 시각에 음주운전 후 충돌사고(를 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행태와 사고”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서원 기자



이재명·한동훈, 재보선 주말 유세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인천 강화홍동시장에서 채소를 구매하고 있다(왼쪽 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6일 부산 남산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뉴스·연합뉴스]



이재명, 여당 이탈표 뒤 강성발언... 국민의힘 “탄핵 노골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강화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더 나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선거에서 바뀌어야 한다”며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심각하면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허물을 가려내 벌을 줌)해야 한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도 “대리인이 잘 못하면 책임을 묻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간에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루 “끌어내려야”란 말을 세 번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대통령 탄핵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에도 이 대표는 “링 위 선수가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식 중일 때라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다.

지난 3일 부산 유세에선 “경제·민생·안보·외교를 망친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지난달 30일

영광군수 지원 유세 땀 “보궐선거는 2차 정권심판”이라고 했지만 “끌어내려야”는 식의 말은 안 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 제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가 이탈했을 만큼 여권 균열이 감지됐고, 특검법 폐기에 대한 비판도 확산됐다”며 “탄핵 여론이 고개를 들자 이 대표의 발언이 세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친명계 인사는 “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 직후 부산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우면서 이 선거판을

“김 여사 의혹 끝까지 파헤칠 것” 야당, 상임위 총동원 압박국감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물겠다”며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역시 재발의하

고, 관련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끝장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 몰이, 이 대표 방탄 국회·방탄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서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의혹이 있거나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오현석·성지원 기자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임기 도중이라도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으로, 탄핵을 명백히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 ‘탄핵의밤’ 국회 대관을 주선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 이 대표 속내에 따른 것이란 걸 명확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망나니 칼춤 주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 그 칼에 누가 베일지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두 건의 1심 재판이 있는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서범수 사무총장),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대표가 탄핵 폭주중”(나경원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도 잇따랐다.

그러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일을 못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이 대표의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켰다”며 “한 대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급매

\$69만
우드브리지
니콘 렌즈
상급홈
방4+
차고2

\$56만
앨범론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동선 메트로와 인접
타운하우스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차고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불황·고물가에 회식 사라져… 노래방 마이크가 꺼져간다

전국 노래방 8년간 25% 없어져
물가 오르고 회식은 줄어들어
편의점·카페는 불황에도 개업 증가
혼밥·혼술에 저가커피 찾는 이 늘어

자영업자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여럿이 함께하는 외식·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나 혼자 즐기는 혼술·혼밥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다. 달라진 취미 활동으로 여가 생활도 달라졌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식사 후 방문하던 노래방은 사라지고 있는 반면 ‘골린이’를 겨냥한 실내골프연습장이 부쩍 늘었다.

특별한 기술이나 사업 경험이 필요 없어 한때 인기 창업업종이었던 노래방은 2016년 코인노래방 열풍으로 크게 늘었다가 팬데믹 이후 내리막 길에 접어들었다. 편의점 혼술족이 늘고 저녁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식사 후 2·3차에 찾던 노래방에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6일 국제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16년 3만5000여 개였던 전국 노래방 수는 2020년 3만 개 선이 무너졌고(2만8758개), 올해 7월 기준 2만5990개까지 줄었다. 서울 서초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저녁 회식하는

직장인들이 없으니 방 6개 중 1개도 찰가 말까”라며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삼삼오오 노래방에 오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

위기가 두드러진 업종은 음식점이다.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음식점 폐업률은 19.8%로 79만 개 중 15만 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재료비,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이 오히려 크다. 서울 종로구에서 2대째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 원래 8000원이던 설렁탕 가격을 지난해 9000원으로 올렸는데 그새 재료비가 더 올라 난감하다”며 “코로나 때는 손님이 적어도 정부 지원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으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황 속에서 조용히 늘어나는 업종이 있다.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편의점(직영점 제외)은 2020년 4만4858개, 2021년 4만8458개, 2022년 5만1564개, 지난해 5만3242개로 늘었다. 치킨, 피자, 샌드위치 등 델리류와 커피 등 디저트류까지 식품 구색을 확대한 덕분에 주머니 가벼운 이들의 식사 수요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2020년 7만1233개였던 커피전문점은 올해 7월 기준 9만6520개로 늘었다. 저가 커피인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뽕다방 등의 입지가 특히 커졌다. 이들 매장은 대용량 아

메리카노 가격이 1500~2000원대인 것이 특징이다. 불황으로 비싼 외식 대신 저렴한 가성비 높은 식음료 소비 공간으로 소비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영됐다.

골프 저변이 확대되며 젊은 층의 수요가 늘어난 골프장의 경우 실내연습장 수가 크게 늘었다. 국제청에 따르면 2020년 5365개였던 실내스크린 골프점은 올해 7월 기준 8762곳으로 증가했다. 비용 부담을 느끼는 젊은 이용자들이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몰린 결과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추이로는 올해 사업체를 접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에게 폐업·전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이 높은 자영업자를 지원해 소기업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마·오소연 기자

노래방은 문닫고

단위: 개



카페는 우후죽순



자료: 국제청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 애니로 만난다

서울특별시의 공식 마스코트인 해치&소울 프렌즈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내년에 만들어진다. 지난 2월 공식 출시된 해치가 인기를 끌며 서울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해치&소울 프렌즈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면 기존 서울시 캐릭터인 ‘꼬마버스 타요’의 인기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사랑의 하츠피’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치&소울 프렌즈의 인기에는 서울시 캐릭터마케팅팀 이남규(37) 주무관과 조예지(32) 주무관이 큰 역할을 했다. 해치 캐릭터는 2008년 처음 만들어졌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해 “서울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외주업체로부터 30개 이상의 시안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조 주무관은 “관공서가 아닌 민간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며 “인정이 많고 착하면서 해학성을 지닌 캐릭터를 원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치가 모나지 않



조예지 주무관(왼쪽)과 이남규 주무관이 해치 캐릭터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은 얼굴과 맑은 눈, 큰 코와 귀여운 이빨을 가진 이우다. 몸 색깔도 단청(丹靑) 느낌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을 섞었다. 서브 캐릭터로 프렌즈까지 제작했다. 화난 주작과 울로 현무, 땡땡 청룡, 돌격 백호 등이다. 덕분에 스토리가 풍성해졌다.

지난 2월 본격 출시를 앞두고 가슴 졸이는 시간이 이어졌다. 출시 전에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 앞에 높이 8m짜리 해치 아트 별문을 세울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 자연스레 셀카를 찍었

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해치의 인기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유명 인플루언서인 과나와 함께 만든 ‘돈워리비해치’ 송은 누적 15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해치 댄스 챌린지의 조회 수는 500만회를 넘겼다.

해치가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해치&소울 프렌즈를 일본 구마모토현(縣)의 인기 캐릭터인 구마몬이나 미국 뉴욕 브랜던 ‘아이라브뉴욕’에 버금가도록 하는 게 그것이다. 이수기 기자

지난해 자살률 9년 만에 최고치

전체 사망자 수는 4년 만에 감소

지난해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전년 대비 5.3% 감소한 689.2명을 기록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 암(24.2%)이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9.4%), 폐렴(8.3%), 뇌혈관질환(6.9%), 고의적 자해(자살·4%), 알츠하이머병(3.2%), 당뇨병(3.1%)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암은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순으로 높았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수)도 8.5% 늘어난 27.3명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전년(7.2명) 대비 10.4%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한국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OECD 평균이 10.7명이고 한국은 24.8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리투아니아가 17.1명(2022년 기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술임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술임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 7671 | www.sejongbiotech.us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우리말 바꾸기

가을과 관련한 순우리말

다음 중 충분히 익어 떨어질 정도가 된 열매를 뜻하는 순우리말은?

㉠한물 ㉡건들마 ㉢오사리 ㉣아람

‘㉠한물’은 과일·채소 등이 한창 수확되거나 쏠아져 나올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사과가 한물이니 싹껏 먹어라”처럼 쓰인다. “그 사람도 이제 한물갔다”와 같이 ‘한물갔다’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때의 ‘한물갔다’는 전성기가 지났다는 뜻이다.

‘㉡건들마’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초가을의 선들선들한 바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길가의 꽃들이 초가을 건들마에 춤을 추듯 하늘거리고 있다”처럼 쓰인다. 비슷한 말로는 ‘건들바람’이 있다. ‘㉢오사리’는 같은 작물을 제철보다 일찍 수확하는 일 또는 그런 작물을 뜻하는 말이다. ‘오사리 고추’ ‘오사리 호박’ 등처럼 사용된다. ‘오사리 새우’ ‘오사리 멸치’와 같이 해산물에도 쓰인다.

‘㉣아람’이 정답이다. 밤이나 상수리 등이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말이다.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처럼 아람이 활짝 벌어지는 것을 ‘아람(이) 벌 대벌어지다’고 한다. 아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곧 떨어질 상태에 있는 것은 ‘아람(이) 불다’고 한다. ‘아람’은 수확의 계절에 잘 어울리는 순우리말이다. 상호나 단체명 등으로 더욱 많이 사용했으면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탈북민들을 환영하고 모두 받아 들인다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동부전선에서 북한 군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귀순한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 (MDL)을 도보로 넘어 귀순하였다.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이동했는데 감시 경계중인 한국 군 병사가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 유도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자는 당시 북한 군복차림으로 계급은 하사였다. 북한 현역 군인이 MD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9년 7월 말 중부 전선에서 임진강을 통해 귀순한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북한은 DMZ 부근에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경계와 방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도보 탈북은 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고 목숨을 건 모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탈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전문가들은 지난 6월,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방송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간의 방송에는 리얼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의 한국행, 방탄소년단 (BTS)의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1위 등의 소식을 전했다. 북한군을 향해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메시지도 송출했다. 둘째, 최근 귀순 사례는 기록

적 홍수 피해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북한의 이번 수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관련해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북한 상황이 안 좋으니 탈북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정은이 직접 수해 주민을 달래는 행사를 공개적으로 펼치는 것은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귀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판 MZ세 대인 장마당 세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배급체계 붕괴로 북한 주민들은 종합시장인 장마당을 떠돌아다니며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MZ 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최근 목숨을 걸고 귀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적신호로 읽고 있다. 또한 대북방송이 나 시간 단체의 대북전단 등을 통해 정보가 폐쇄된 북한에 한국에 관한 소식, 정보, 자유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탈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냉철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투철한 안보 관을 구비해야 한다.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을 막론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5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향후 한반도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독자마당

목숨과 바꾼 자존심



은 한쪽 귀로 흘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견뎌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터무니 없는 비방으로 마지막 궁

지까지 몰고 간 사람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

옛날 중국의 한 고조 유방은 자존심을 버리고 항우의 가량이 사이를 기어갔지만 끝내는 승자가 됐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실리를 택했고, 결국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학교 성적이 낙담하거나 친구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또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인생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는 차마 해서는 안 될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 보면 성공도 있지만 실패하는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무슨 큰일이 생길 때마다 일회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길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극단적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영훈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뷰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Financial Group



메디케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티모시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 메디케어가 처음이신 분들 (1959년~1960년생)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듀얼 플랜)
-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들
- 처방약 절약이 필요하신 분들 (LIS)

파트 A & B / 파트 C (어드밴티지) / 파트 D (처방약)
메디갭 (서플먼트) / 듀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연금 보험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평생 연금으로 고객님의
노후를 든든하게 계획해드립니다!
각 고객에 맞는 연금보험을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 암 보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 보험 (오바마케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의료 보험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개인 맞춤
진단!

티모시유 보험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

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

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

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FIOAPAQuestions@uscis.dhs.gov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우리
유산 상속법 변호사

Q 다주택자가 된 미국 시민권자, 종합부동산세 폭탄 맞나

▶문=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한국에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살고 있다.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 중인 용산 아파트와 예금이 전 재산이라며, 셋이서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다. 문제는 내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동생들과 공유하게 되면 나는 2주택자가 될 텐데, 그러면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다고 들었다. 내가 내야 할 보유세가 정말 많이 늘어날까?
▶답=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

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단일 세율이라 예상 못 할 금액이 부과될 걱정은 없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많은 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종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으며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간 적용받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종과세를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 외에 상속으로 용산에 있는 주택이 1채 생겼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별도의 주택수로 세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의 용산, 강남과 같은 조정 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되었을 텐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런 종과 위험도 사라졌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기존 보유 주택 외에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다고 해도 1주택자로 간주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적용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수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에 상속 발생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알버트장
노동법 변호사

Q 에어컨 문제로 불평 제기 후 해고됐다고 고소

▶문= 직원이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유로 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을 해 두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장비 제공, 작업 안전을 위한 절차 마련, 안전 교육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안전규정 위반으로

회사를 직접 소송할 수는 없지만, 만약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을 산업안전보건청(OSHA)이나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와 같은 보복행위를 당했다면 부당해고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처럼 더운 날씨가 건강에 위험이 되기까지도 하는 지역인 경우, 직원들이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사병이나 탈진 등 열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가 없을 시 안전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에 에어컨이 없었다는 사실 만으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장의 환경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그것이 직원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이 환기가 잘 되고, 다른 쿨링 메커니즘이 있었으며, 직원들이 시원한 곳에서 자주 물을 마시고 잦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들이 있었다면, 에어컨이 없더라도 안전에 큰 위험이 아닌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없어 직원들이 일을 하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

경이었고 이를 직원이 실제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면 회사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송 방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을 해고한 이유가 보복성이 아니라 업무상의 이유 등 적절한 이유임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원이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으면서 허위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주는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작업장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 1. 집값 - 셀러레포트
-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 3. 지붕, 거러, 인스텍션
- 4. 히팅/에어컨 인스텍션
- 5. 터마이트 검사
- 6. 홈워런티
- 7. 현재 소유 보험 리부
- 8.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 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슨 대학, 트윈부룩을,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VAC, 새 핫워터탱크, 새 마루, 새 카펫 (차이 방, 풀베스, 우드 fireplace) 산통, 피리오, 워그아웃
- **풀스체지 콘도 \$249,900**
방 1, 화장 1, 전체 리모델링, 495/66/50, 모자역, 덴로링메트로
- **스프링필드 벽돌 다운 렌트 \$3,200**
방 3, 화장 3.5, 차고, Rolling Rd/286/95/495, Fort Belvoir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2,1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대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에 자리잡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근접

\$1,799,000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 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잘 가꾸어진 밝고 예쁜집,
업데이트된 나무마루, GREAT VIEW
BELMONT BAY COM, 방3/화3

\$625,000



독점 FALLS CHURCH 콘도

아난데일 5분 거리, "GREAT VIEW"
방2/화2/세탁기/리모델링한 9층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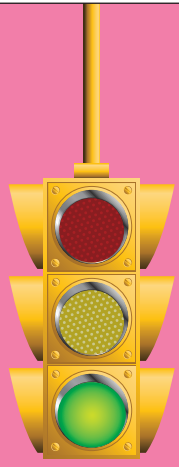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과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통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 303-4556 / f. (703) 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대기업도 제친 '인디브랜드' ... 64조 K뷰티 시장 다크호스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2곳이 90% 가까이 점유하던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중소기업(인디브랜드)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시장에서 인디브랜드 비중은 68.7%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기적이다.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의 부상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비중국 시장 진출 등이 맞물린 덕분이다. 대기업도 인디브랜드를 인수하며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이른 시간임에도 쇼핑객으로 붐볐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매장에는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의 외국인 손님이 90% 이상이었다. 친구와 함께 한국을 찾은 일본인 히나키씨는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달바 미스트를 구매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 화장품과 영양제가 가득 담긴 쇼피백을 내보였다. 매장의 한 직원은 "최근 외국인 문의가 가장 많은 파운데이션 제품은 힌스의 블루 쿠션"이라며 "과거에는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무조건 구매했는데, 지금은 한국인도 잘 모르는 제품을 제품번호까지 외워와 찾곤 한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이 인수 나서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이 이끌었던 한국 화장품시장(K-뷰티)에 달바·넘버즈인 등 낮은 이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한방 원료로 외국인을 사로잡았던 과거와 달리 기초·색

달바·힌스·넘버즈인·바이오던스...
신생 중소기업 뷰티 브랜드 호황

미스트 등 특정 제품 전문적 개발
온라인·드럭스토어서 인지도 높여

유튜브 등 활용 글로벌 고객 확보
화장품 수출 증기 비중 69%로 늘어

조 등 특정 기능을 위주로 개발하는 인디브랜드(신생 중소기업)가 K-뷰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3% 역성장했으나 중견기업은 16.3%, 중소기업은 30.8% 증가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뷰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상황이 좋지 않는데 뷰티 업체들은 탄탄"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도 중소 브랜드는 심심찮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대기업에 밀려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랬던 중소 브랜드가 호황을 맞이한 건 유통 채널



아마존에서 부문별 1위에 오른 아누아 토너(왼쪽), 달바 세럼(가운데), 바이오던스 마스크팩 제품. [사진 아마존]



화장품 주 구입 장소 단위: %, 중복응답, 중저가 화장품 기준, 자료: 메조미디어

드럭스토어	70
온라인 쇼피몰	62
브랜드 자사몰	22
로드샵	20
온라인 버티컬 플랫폼	11

인수·합병 활발한 화장품업계

- 2021년 9월 아모레퍼시픽, 더마 브랜드 코스알엑스 인수
- 2023년 9월 LG생활건강, 색조 브랜드 힌스 인수
- 2024년 5월 구다이글로벌, 티르티르 인수
- 2024년 8월 신세계인터내셔널, 색조 브랜드 어뮤즈 인수

이 온라인·드럭스토어로 집중되면서 인지도가 낮은 제품도 쉽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게 된 영향이 컸다. 전국 1000여 개의 드럭스토어 유통망을 확보해 매장 없이도 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해졌고, 자체 세일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게 된 때문이다.

이해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인

디브랜드는 고정비가 많이 드는 점포 출점 대신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입점을 선택해 접근성,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며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올리브영에 입점했던 것이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유진 기자
▶ 2면 '중소 화장품'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로우 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co-operation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한국어 800
703-887-1037
law@rowepllc.com

미 9월 고용 25.4만명 깜짝 증가... 연내 빅컷 가능성 낮아져

〈기준금리 0.5%P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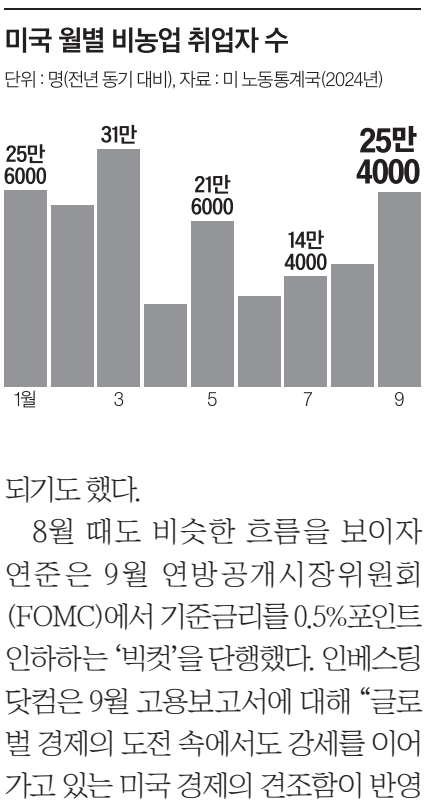
9월 미국의 신규 고용이 25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탄탄한 미국 고용지표에 경기 침체 우려를 씻어냈다. 미국 경제의 소프트랜딩(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컷’(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을 택할 확률은 더 높아졌다.

4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25만4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15만 명)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올해 3월(31만 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시장 예상보다 낮은 4.1%로 전월(4.2%)에 비해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8만1000명 감소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3개월 연속 62.7%를 기록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4% 증가한 35.3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시장 예상치 15만 명 크게 웃돌아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 커져
실업률 4.1%, 한달새 0.1%P 하락

해 9월보다 4% 늘었다. 예상치(0.3%, 3.8%)보다 빠른 속도다. 9월 고용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가능할 중요한 지표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불과 두 달 전인 7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가 낮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블랙먼데이’가 연출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준의 추가 빅컷 기대는 후퇴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연준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9.4%로 내다봤다. 발표 전 60%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살 가티에리 BMO 캐피털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견조한 소비지출이 이어지고 대형 서비스 부문이 경기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어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발표될 지표가 많이 남아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경제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혼조세다. 앞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9월 서

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9를 기록해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 28일 기준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5000명으로 시장 예상치(22만 1000명)를 웃돌았다.

미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허리칸’의 여파로 앞으로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향후 몇 주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동 갈등 고조도 변수다.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폭등에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두타 경제연구이사는 “허리케인 피해와 글로벌 정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물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 1면 '중소 화장품'에서 이어집니다

올리브영 운영사인 CJ올리브영 측은 “지난해 연 매출 100억 이상 브랜드 중 절반(51%)이 한국내 인디브랜드였다”며 “8~9월 세일기간에도 넘버즈인, 바이오던스, VT 등 입점한 지 5년도 안 된

신생 브랜드가 외국인 구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드럭스토어를 통해 점차 인지도를 쌓던 인디브랜드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외에 이름을 알리면서 수출 물꼬를 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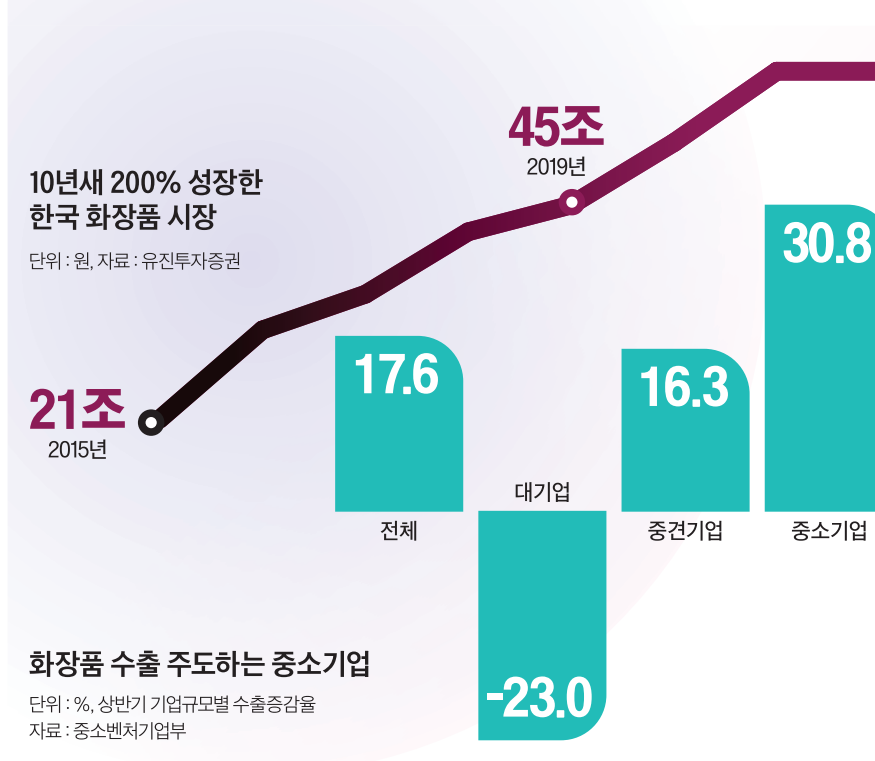
대기업 브랜드처럼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고객의 전광판 광고에 힘을 쏟는 대신,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먹힌 것이다. 이 덕에 마스크팩을 만들어 파는 바이오던스는 아마존 뷰티 마스크팩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바이오던스는 2021년 뒤늦게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홍보 영상 등이 틱톡과 같은 SNS에서 1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북미와 일본 마스크팩 시장을 장악했다.

리상이 주를 이루던 화장품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아마존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역직구 형식으로 변화했는데, 이러한 시장 변화에 인디브랜드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약 200개의 인디브랜드의 기업 간 거래(B2B)를 중개하는 실리콘투 관계자는 “중국에서의 중간 벤더 유통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비중국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 시장에 먹혔다”고 전했다. 올해 7000억원대의 매출을 전망하는 실리콘투는 연중 주가가 450% 상승해 상반기 한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인디브랜드의 몸값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사가 인디브랜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더마 개발·판매사인 코스알엑스 지분을 추가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 사이 매출액이 300% 이상 성장하며 모기업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 대형사들은 인디브랜드가 인수 후에도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색조

전문 브랜드 힌스 개발·판매사 비바웨이브를 인수하며 “독립경영 체제를 통해 브랜드 고유 특성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 뷰티 브랜드 어뮤즈를 인수한 신세계인터내셔널도 “고급 고가 라인에 치중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며 “젊은 감각으로 빠르게 제품을 개발하는 게 인디 브랜드의 강점이 다 보니 대기업 시스템 대신 독립경영을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뷰티 트렌드가 자주 바뀌는 만큼 인디브랜드의 인기 또한 ‘반짝’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4분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특수, 신규 시장 개척 덕에 당분간 인디브랜드 인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소비 약세에 저가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한국내 중저가 브랜드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주 타겟인)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성비 인디브랜드 제품들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오유진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 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백립,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0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북측, 월순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Beer and Wine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단독건물 에난데일 최고 상권, K-Market 건너편 임대, 드라이브 트루잇룸, 2500 SF, 식당, 커피샵, 맥주 전문점허면 좋은 자리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 임대계약, 50만불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다씨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 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상존하는 다양한 리스크 ... 능동적 관리 신경 써라

10월 시장환경 분석

9월은 현 시장환경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식시장은 연준의 전격적인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계기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팬데믹을 지나고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진행 중인 흐름이다.

선거 전까지는 통상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시장지표는 현재 상승장세 유지 쪽이 우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아직 낙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장세 요인들

상승장세 지속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연준의 금리 인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조치다. 불황을 동반하지 않은 금리 인하는 역사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해온 경험이었다. 일차적으로 투자 진작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주식들이 상승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몇몇 종목이나 섹터에 편중됐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패턴이 형성된 종목들이 계속 드는 추세다. 기술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역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8월의 PCE 수치가 2.2% 대로 떨어졌다. 연준의 타겟에 근접한 수치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고 있다. 연준의 ‘빅컷’이 시기적절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하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9월 말 들어 기관들의 매도가 늘고 있다는 지표가 있다. 단기 이익 실현일 수도 있고 시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로선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추세가 계속 강화된다면 경고 사인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금



대선 앞두고 주식시장의 낙관 기조 유지가 전망되지만,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로이터]

선거 전 변동성 높아질 수 있어 ... 상승장 유지 전망 우세
경기부양 목적 금리 인하의 불황 동반 여부가 장세 좌우
각종 경기지표 주시하며 경기 전반 상황 판단 필요한 때

값 추세는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방어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주식 등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수개월 이어진 채권값 랠리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 등 위험자산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

한동안 하락세가 정체돼있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다시 추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연준의 타겟인 2%대에 매우 근접한 상태다.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시장과 경기지표에 더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춰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상과 달리 다시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인하 사이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난감한 상황에 몰릴 것이다. 물가가 재상승하고 실업률마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지난달 발표된 8월 중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 대비 2.5%로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다. 반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는 3.2%를 기록했다.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전문가가 최소한 단기 시장전망을 낙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고용 및 경기지표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용시장이나 경기가 급격히 냉각 추세를 보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금리

연준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이자는 올라갔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들의 이자가 올랐다. 일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시중 채권 수익률도 내

려가지만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채권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국채이자, 유동성, 디폴트, 만기에 따른 이자, 재투자 리스크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 리스크다. 채권값과 이자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투자자들은 그에 상응해 이자를 더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준이 2%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중장기 인플레가 형성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는 구매력 손실은 크다.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디폴트(default) 리스크’다. 연방정부의 적자는 이미 잘 알려진 리스크다. 연방정부의 재무상태에 대

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장기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투자자들은 해당 리스크에 대한 반대급부를 더 요구하게 된다. 10년물, 30년물 수익률이 올라간 이유로 볼 수 있다. 리스크가 높으니 이자를 더 쳐주거나 채권값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연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시장은 이를 환영하며 반등했다. 연준의 경제전망요약도 연말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 중간값이 그렇다. 시장은 연준이 시사하는 것에 비해 더 공격적인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0.75%포인트 이상 연래 인하 가능성이 50%를 넘고 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27%다. 최소 0.5%~0.75% 포인트 연래 인하 시나리오 가능성이 80% 정도에 달하는 셈이다. 1%포인트 추가 인하 가능성도 23%로 나오고 있다. 내달과 12월 모두 0.5%포인트씩 ‘빅컷’으로 간다는 뜻이다.

시장의 기대가 곧 실제 시나리오는 아니다. 연준도 좀 더 공격적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여타 경기지표들과 무관하지 않다. 금리 인하 자체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적인 여파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금리 인하가 불황을 동반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경기가 양호할 때 취한 선제적 금리 인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지만, 경기둔화나 불황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취해진 금리 인하는 불경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하락을 초래한 역사적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각종 경기지표가 말해주는 경기 전반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 대선 역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보다 실질적인 요인은 경기 흐름이 될 것이다. 대체로 낙관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켄 최 아메리츠 애셋 대표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곱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PART 16. 광고 효과 두 배 이상 쉽게 늘리는 비밀?

▷언제나 경쟁사를 앞서는 비밀?

잘 나가는 다수의 경쟁사들을 주위 한 신규 최강자의 비밀이 있다. 업소의 규모, 사업 기간과 상관없이, 이 비밀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예외 없이 최고의 자리까지 달려간다. 그 이유가 바로 ‘특별한 오퍼’이다.

▷돈 더 쓰지 않고 새 고객 두 배 이상 늘리기?

오늘은, 광고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새 고객 문의와 고객 반응을 두배 이상 높이는 위대한 오퍼를 해부해서 살펴 보겠다. 한 발 앞선 오퍼 하나로 지역 시장의 최강자의 자리는 당신이 빼앗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경쟁사를 쉽게 앞지르는 나만의 핵심 오퍼의 앞부분에 대해 나눴다. 이제 결과를 움직이는 실제 내용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마스터해 보

자. 그 내용과 나만의 오퍼를 광고에 넣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결과는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다. 믿기 어려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와 설명은 지난 칼럼을 참고하면 된다.

▷내 광고 메시지,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의 광고 효과에 충분히 만족하는가? 효과가 미미하거나 어쩔 수 없이 광고하는 현실이라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나의 오퍼이다. 이것만 바꾸면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는 기이한 고객 반응을 만나게 된다. 고객이 앞다투어 달려드는 월등한 가치의 오퍼는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한다. 준비되었다면,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자.

▷가슴 뛰는 오퍼의 비밀?

고객은 오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오퍼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광고



윤필홍
IntelSystems대표

고에 돈을 쏟아부어도 달려드는 고객은 드물 수 있다. 반면에, 보기만 해도 가슴 뛰는, 한정 판매로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오퍼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은 끌려온다. 이런 가치와 특별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오퍼는 주변 경쟁사 오퍼와 비교할 때 더욱 빛난다. 이 때문에, 경쟁

사 오퍼보다 현저히 매력적이고 큰 가치를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주 부담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한다. 어떻게 그런 오퍼를 만들 수 있을까?

- 1) 고객 필요에 맞춘 혜택으로 승부한다.
- 2) 긴급성과 희소성을 부각한다.
- 3) 액션을 이끄는 행동 명령을 넣는다.

1) 고객 필요에 맞춘 혜택이란?

아무리 큰 혜택을 약속해도 외면되는 광고가 허다하다. 고객의 필요와 마음의 욕구를 건드리지 않으면 반응은 바닥에서 뒹군다. 지금 나의 광고 문구와 내용, 오퍼는 안녕한가?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가?

집수리 업체에서 늘 제공하는 오퍼는 무료 견적이다. 이걸 보고 가슴 뛰는 고객이 있을까? 너도 나도 던는 이런 광고는 차별화도 특별함도 없다. 지

루함 그 자체이다. 다른 10개 이상의 업체를 제치고 당장 문의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바깥야 가슴에 훅 다가가?

▷오늘의 필수 숙제

경쟁사들의 광고와 메시지, 그리고 오퍼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객을 싸늘이하는 상위 업체와 힘겹게 따라가거나 탈락할 업체들의 차이가 분명히 보인다. 이 내용만 제대로 관찰해도 나만의 오퍼에 매우 강력한 날개를 달게 한다.

항상 앞서는 로컬 사업체의 광고 메시지와 오퍼가 나머지 경쟁사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후에 다음시간에 나머지 스텝까지 모조리 마스터하자.

▷특별한 오퍼, 랜딩 페이지, 마케팅 문, 무료 ebook ▷문의:703-337-0123, www.intelsystems.com

세법 상식



윤 주 호
CPA

대통령 후보 세금 공약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후보의 맞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세금 공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의 주요 세금 공약입니다.

1.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초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이 공약을 언급했고, 이후 공화당은 이를 새 강령에 포함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지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레저 및 서비스 봉사업에 종사하다 보니 대선 승부를 가를 경합주 중 한 곳인 네바다주를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면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자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됩니다.

3. 소셜연금의 소득세 면제

트럼프는 ‘You Earned It, You Keep It Act’ 법안을 통해 소셜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소셜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세금정책 철폐 공약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었던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춰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트럼프, 법인세 21%에서 15%로 인하 해리스,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5. 법인세 인하

지난달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감세 공약을 비판하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증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장기 자본소득세율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여러분의 장기 자본소득세율은 28%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

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개한 계획(39.6%)보다는 많이 낮춘 증세 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자본소득세는 최대 20%입니다.

2. 미실현 자본소득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고 하지만 ‘미실현 자본소득’에도 과세한다는 것은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3. 법인세 인상

트럼프 후보의 법인세 15% 인하와는 반대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0%)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

습니다.

4. 첫 자녀 6000달러 세액공제

해리스 후보의 감세 정책 중에는 첫 자녀에 대한 6000달러 세액공제와 매년 6세 이하 자녀 한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중소기업 창업 비용 공제 혜택

창업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지원에 맞춰져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 세금 공제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먼저 발표한 팁(서비스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동시에 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금 공약에 대한 찬성과 비판의 목소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ALTY MARYLAND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SOLD

Rockville

\$280,000

콘도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COMING SOON

Rockville

싱글홈, 방5, 화2, 차고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하버드 연구서 확인한 행복 열쇠는 돈보다 ‘좋은 관계’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로버트 월딩가·
마크 슐츠 지음
박선령 옮김
비즈니스북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단순한 질문이 있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관심을 쏟는 근원적 물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 나왔다면 결론은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니 걱정이 앞선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원제 The Good Life)는 쉽게 말해 ‘행복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책이다. 그런데 다행히 걱정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예상되지만.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식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연구했느냐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소’의 행복연구는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던 무렵인 1938년 보스턴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버드대 2학년 재학생 268명과 보스턴 도심 빈민 지역 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연구 프로젝트가 착수됐다. 지금은 그들의 아내, 자녀 등을 포함해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3세대에 걸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인간의 생애에 대한 가장 깊고 심층적인 ‘종단(縱斷)연구’이며 또한 과거에 국한된 회고적 연구가 아니라 현재의 삶, 앞으로의 삶까지 탐구하는 전향적(前向的) 연구다.

8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연구가 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야구 경기장에서 한 팬이 ‘나는 행복하다(I’m Happy)’라는 팻말을 든 모습. [AP=연합뉴스]

탕이 됐다는 점에서 일단 이 책의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은이들은 이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와 부책임자다. 그들은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는 이 연구의 방법이 ‘과학적’이라고 자신한다. 인터뷰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 스캔,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혈액검사 등 다양한 렌즈를 통해 웰빙 상태를 확인했다. 말로만 번듯하게 전하는 행복론이 아니라 인간 성장에 대한 독보적이고도 전례 없는 연구의 결과물인 이 책은 이쯤 되면 그 자체가 행복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렇다고 그게 모든 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하버드 연구’는 분석한다. 하버드대 졸업생들이자 1975년 55세가 된 변호사 존과 고교 교사 레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존은 연 5만 2000달러를, 레오는 연 1만 8000달러를 벌고 있었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존은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고, 반

면 레오는 자신을 가장 행복하다고 평가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배경에는 각자의 복잡한 스토리들이 얹혀 있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관계였다. 이 책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좋은 관계야말로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사람은 외로워지면 몸이 아프게 마련이다. 외로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피곤하고 짜증도 잘 낸다. 특히나 노인의 고독은 비만보다 건강에 두 배나 해롭고 만성적인 고독은 사망 확률을 26%나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연결, 소속감이 필요하다. 관계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다.

좋은 관계에 필수적인 관대함은 긍정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돕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 뇌가 좋은 감정을 느낄 준비를 하고 그런 좋은 감정 때문에 미래에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한다.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친밀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소속감,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등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친밀감은 보다 긍정적인 관계와 건강으로 이어진다. 상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할 때만이라도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같은 참호 안’에 있는 관계를 맺는 일도 중요하다. 영국의 평균적인 개인은 80세가 될 때까지 친구 교제에 8800시간, 친밀한 파트너와의 활동에 9500시간, 직장에서 11만 2000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직장 동료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행복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직업적으로, 또는 가정을 이루면서 이미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기에 친구는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친구는 우리 건강과 웰빙에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친구들은 우울할 때 기운을 북돋워 주고 우리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줄 거야’라며 우정 쌓기를 무작정 미룰수록 행복계정에 손해가 커질 것이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행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책 속으로 무작정 한번 뛰어들기를 권한다.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한경환 기자

가장 어려운 도전은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의 미래
김병연·김선혁·허재준·
한준·김재석 지음
아카넷

“자본주의의 미래는 기술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달려있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다섯 명의 학자가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김병연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어려운 도전으로 꼽았다. “불평등한 자본주의가 ‘나’와 ‘나’를 갈라놓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면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제도는 이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증가기관과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처럼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범용기술이다. 이를 집중 분석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논문은 경제사를 적재적소에 인용해 흥미로웠다. 허 원장은 범용기술의 확산기에는 소득불평등 악화로 사회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환기에는 이해 조정이 긴요한데 포퓰리즘에 맞서기는 커녕 정체되지 않은 민주주의에 종속된 팬덤과 그에 편승한 정치가 사회의 이해 조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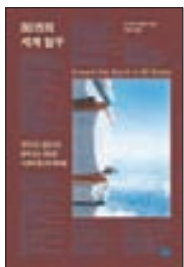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업(ICT)의 조직 문화를 다룬 김재석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의 논문은 기사처럼 속도감 있게 읽힌다. 구글의 ‘협업과 모험의 문화’를 집중 분석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자주 언급하는 ‘좋은 일 하기(doin good)’가 회피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좋은 일 하기’는 단순한 기업이익 극대화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세계에 기여하자는 것이니, 공유 혹은 나눔의 정신과 이타주의를 내세운 회피 운동과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수평적 조직과 협업 시스템, 직원 복지 등은 장점이지만 높은 노동강도와 무한경쟁은 단점이다. 재택근무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가정의 일터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국 기업을 벤치마킹한 한국과 중국의 ICT 기업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라는 한계와, 잔존하는 동아시아의 위계적 기업문화 탓에 문제가 더 심하다. 중국 직원들은 “출근하면 996, 병이면 ICU”라고 한다. 99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6일 노동한다는 뜻이고 ICU는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이다. 대우학술총서로 묶여 나와선지 좀 딱딱한 논문도 있다. 관심 있는 논문만 골라서 읽는 발췌독도 괜찮겠다.

서경호 기자

책꽂이



동유럽사 (존 코블리 지음, 허승철 옮김, 책과함께)=부제 ‘제국의 일원에서 민족의 자각으로, 민족 운동에서 국가의 탄생까지’. 18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 동유럽 혹은 중동부 유럽으로 불리는 지역의 역사적 흐름을 담아낸 미국 역사학자의 역작. 방대한 본문을 두 권에 나눠 실고, 주(註)를 부록에 담아 모두 세 권이 한 벌인 형태로 출간됐다.



80권의 세계일주 (데이비드 맴로쉬 지음, 서민아 옮김, 알에이치코리아)=유럽·중동·남미·아시아·아프리카·미국 등을 고루 아우른 세계문학 책. 16개 도시·지역별로 5편씩, 문학사의 명작 80편을 소개한다. 미국 하버드대 비교문학 교수로 코로나19 시기에 이 책을 쓴 저자에 따르면 ‘위기의 시대와 강렬한 트라우마에 반응한 작품들’이기도 하다.



뺑가게 재습격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 Jc 드브니·PMGL 지음, 김난주 옮김, 비체)=무라카미 하루키의 명성은 세계적인. 그의 단편소설을 프랑스의 그래픽노블 작가·각본가가 만화로 만들었다. 『개구리 군 도교를 구하다』(홍은주 옮김), 『세에라자드』(권남희 옮김), 『버스테이 걸』(양윤옥 옮김) 등 모두 9권이 한꺼번에 번역돼 나왔다.



강신주의 장자수업 1·2 (강신주 지음, EBS BOOKS)=부국강병을 내걸고 저마다 자신의 쓸모와 존재를 증명하던 중국의 전국 시대에 ‘쓸모없음의 철학’을 역설한 ‘무용(無用)의 철학자’, 그리고 ‘타자의 철학자’이자 ‘문맥주의자’. 저자는 장자를 이런 세 관점으로 정의한다. 10월말 시작한 EBS 방송 강의와 나란히 기획해 출간한 책이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라이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PENDING

\$1,250,000

● 4/3.5/2 차고
●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페어팩스 싱글홈

PENDING

\$750,000

● 4/3. Ranch 스타일. 0.2 Ac.
● Gut Location, 조용한 동네.
● Move-In Ready

페어팩스 타운홈

PENDING

\$699,000

● 3. 255/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센터빌 타운홈

UNDER CONTRACT

\$569,000

● 4/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료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로마의 콜로세움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검투사에 열광한 로마... ‘하는’ 스포츠 멸종, ‘보는’ 것만 남아

서기 393년, 고대올림픽이 폐지됐다.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온(Stadion)도 주경기장의 지위를 내놓았다. 그 자리를 콜로세움이 차지했다. 콜로세움은 첨단을 자랑한 로마 건축 테크놀로지의 결정판이다.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앞에 서 본 사람은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라는 괴테의 선언을 이해한다.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아치들을 1층은 토스카나 양식, 2층은 이오니아 양식, 3층은 코린트 양식의 둥근 기둥으로 떠받든 거대하고도 유려한 선율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콜로세움과 같은 대규모 원형경기장이 로마에만 있지는 않았다.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어버린 제국이였다. 프랑스의 님과 아를, 이탈리아의 베로나와 카푸아, 유대 땅 예루살렘에도 경기장을 지었다. 북아프리카에도 많다. 튀니지 엘젠티의 원형경기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그러나 콜로세움은 유일한 존재다. 콜로세움이란 명칭은 경기장 앞에 세운 네로 황제의 동상 ‘콜로소’에서 비롯됐다. 콜로소는 ‘거대하다’는 뜻의 라틴어 콜로수스(Colossus)에서 나온 말이다.

“20번 싸워 6번 졌다”는 검투사 기록도 로마는 왜 콜로세움을 지었을까. 왜 도시마다 경기장이 필요했을까. ‘팍스 로

마나’로 집약되는 제국의 정책 중에 ‘빵과 서커스(Panem et Circenses)’가 있다. 로마의 풍자사인 유베날리스가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놀거리를 만들어 거기 몰두하게 만들면 국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민정책이다. 제5공화국 정권이 선택한 ‘3S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스포츠(Sports), 섹스(Sex), 스크린(Screen).

미국 로마 문화 연구소의 다리우스 아리아 교수는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본다. 밖으로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고, 안으로는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정치 무대로 본 것이다. 콜로세움은 황제가 민중의 지지를 구하고 민중은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절대 권력의 상징인 로마의 황제조차 민중과 소통했다는 사실을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콜로세움의 이미지는 피와 죽음이다. 맹수와 인간의 싸움, 굶주린 맹수가 집행한 기독교도들의 처형... 강렬하기로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검투사들의 대결과 비교할 것이 없다.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는지, 땅을 향하는지에 따라 패자의 목숨이 오갔

로마 ‘빵과 서커스’ 우민화 정책 도시마다 거대한 경기장 세워

일류 검투사는 아이돌 못잖은 인기 콤포두스 황제, 검투사 되기 열망

제국 명운 걸렸던 전투, 구경거리로 김나지움서 자란 로마 정신 사라져

을 장면을 떠올리면 숨이 가빠진다. 상상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콜로세움은 투기(鬪技) 경기장이다. 공사를 마쳤을 땐 기념 삼아 100일에 걸쳐 투기 경기가 열렸다고 한다.

현대인이 보기에 ‘콜로세움+검투사=죽음’이다. 그러나 검투사들은 ‘파리 목숨’이 아니었다. “스무 번 싸워 여섯 번 졌다”는 한 검투사의 기록이 로마에 남아 있다. 검투사 양성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 로마 시민을 만족시킬 만큼 뛰어난 검투사는 귀했다. 콜로세움에서 죽은 검투사들은 대개 경기 중 사고를 당했거나 반칙을 한 대가를 치렀다. 경기에 진 다음 죽은 경우는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사망률 10%는 물론 낫지 않다.

일류 검투사는 아이돌 못잖았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재에 덮인 폼페이와 파르티의 건물 벽에는 트라키아 출신의 검투사 셀라두스를 ‘여인의 한숨과 영광(suspirum et decus puellarum)’이라고 표현한 낙서가 선명하다. 검투사 되기를 열망한 황제도 있다. ‘로마의 헤라클레스’를 자처한 사나이, 콤포두스다. 시오노 나미히는 ‘그가 황제일 때 로마엔 망조가 들었대’고 했다. 콤포두스가 검투사의 인기를 시샘했는지, 영웅적인 이미지를 선망했는지 알 수 없다.

콜로세움을 장식한 피의 잔치는 흔히 로마 멸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에드워드 기번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쓴 『로마제국 쇠망사』는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부터 서로마제국의 멸망, 동로마제국의 건설과 멸망까지 2세기에서 1453년에 이르는 약 1300년간의 역사를 다뤘다. 런던에서 태어난 기번은 1763년에 유럽 대륙 여행을 시작했는데, 로마에서 카피톨리움의 폐허를 답사한 뒤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1776년 첫 권을 냈고, 1788년까지 여섯 권을 썼다.

기번은 로마 멸망의 원인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정 파괴, 둘째 과다한 세금과 지나친 소비 풍조, 셋째 쾌락에의 탐닉과 스포츠의 잔혹화, 넷째 군비를 확장했으나 내부의 적을 방지, 다섯째 종교

의 타락과 쇠퇴 등이다. 이 가운데 셋째 원인으로 지목된 쾌락에의 탐닉과 스포츠의 잔혹화는 타락하고 낙약해진 로마인들의 내면세계로부터 제국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로마는 에트루리아와 카르타고, 갈리아 등 강적들을 제압하고 제국을 건설했다. 병사들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에 충만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는 한니بال의 침입으로 시작된 제2차 포에니 전쟁 초반 주요 회전(會戰)에서 로마군이 전멸한 이유를 적에게 등을 보이는 행위를 불명예로 생각한 그들의 정신에서 찾았다. 로마 정신은 김나지움에서 성장했다. 청소년들이 공부와 운동을 한 장소다. 달리기·장단지기·검술과 같은 ‘국방체육’은 중요한 교과 과정이었다.

학교 체육 현실, 검투사 시대보다 엄혹 로마의 체육은 당시로서는 세계의 대부분으로 인식된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근동을 제패한 이후 쇠퇴하였다. 후기 로마의 체육은 직업군인이나 직업경기자의 몫이 되었다. ‘하는 스포츠’는 멸종되고 ‘보는 스포츠’만 남았다. 검투사 경기를 보라.

허진석 한국체육대 교수

▶ 7면 ‘검투사’로 이어집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신성재 변호사

경기 참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저트
**프라임 보험(조앤김)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Licensed Agent

[메디케어 무료신청]

1959, 1960년생이신 분들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약값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LIS 신청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정신 피폐한 군인 연기하러 10kg 뺐죠”

‘팬텀싱어’ 테너 존노가 전막 오페라에 데뷔한다. 19~20일 한강노들섬클래식 축제 프로그램인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돈 호세로 캐스팅됐다. 이 소식이 유독 반가운 이유가 있다. ‘팬텀싱어’를 통해 뛰어난 실력의 성악가들이 인지도를 얻은 반면, 클래식계가 좋은 인재를 대중음악계에 뺏긴다는 시선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로 뜬 뒤 트로트계, 뮤지컬계를 주무대로 선택한 성악가들이 꽤 있다.

줄리어드, 예일대를 나온 오페라 기대주였던 존노의 행보는 좀 달랐다. 데뷔 초부터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면서 여러 음악회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성악곡을 부르고, 살롱오페라 ‘사랑의 묘약’ ‘코지 판 투테’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막 오페라 데뷔부터 야외오페라라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오페라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어요.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오페라를 하고 싶어한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어필했기에 이번에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평가에 대한 걱정은 되지만, 도전을 해야 성장도 있잖아요. 요즘 레슨을 받고 있는 카운터테너 이동규 선생님이 도전해보라고 권해주셨고요. 만약 이번에 안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돈 호세의 아리아 ‘꽃노래’는 첫 솔로 앨범에 수록할 만큼 좋아하는 곡이다. 하지만 ‘모차르트 테너’인 그에게 돈 호세가 찰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 전막은 아니지만 돈 호세역을 여러 번 했어요. 돈 호세는 처음에는 서정적인 소리를 내다가 뒤에는 완전히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야 해서, 두가지 소리를 다 내는 게 진정한 돈 호세라고 하죠. 저는 원래는 리릭 테너였지만 성대결절 이후에 목을 아끼면서 레페로에 가까운 리릭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돈 호세의 아리아 ‘꽃노래’를 많이 불러봤죠. 뒷부분에선 성량이 오페스트라를 뚫어야 해서 제가 좀 개박이 될 뻔 느낌은 있지만, 요즘 다시 리릭 쪽으로 변하고 있어서 도전할 만 한 것 같아요.”

그는 이번 무대를 위해 10kg 가까이 감량했다. 정신적으로 피폐한 군인을

카르멘 돈 호세 역 맡은 ‘팬텀싱어’ 존노
오페라 하고 싶어 주위에 계속 어필



한강노들섬클래식 ‘카르멘’으로 국내 전막 오페라에 데뷔하는 테너 존노. [사진 서울문화재단]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서다. “진짜 돈 호세가 되고 싶어서요. ‘카르멘’은 연기에 신경 쓰고 말고가 차이가 큰 작품인데, 관객이 작품에 같이 빠져들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군인이 너무 ‘귀염 귀염’하면 안되잖아요.(웃음)”

‘카르멘’은 흔히 비극적인 사람이야기로 여겨지지만, 현대인들의 시선에서 돈 호세의 집착은 병적이다. 연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순수한 사랑 때문에 벌어진 비극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호세가 순정남이긴 해도 악역이라 생각해요. 1막부터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면모를 보이거든요. 욕했다가 가라앉는 연기를 표현 안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 무대에서선 그런 걸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병적이고, 아픈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군인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상관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고, 약혼자 미카엘라도 어머니가 정해 주신 거잖아요. 평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다가 틀에서 벗어났을 때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있고, 나중엔 자유분방의 끝판왕인 카르멘에 의해서 선을 넘고 마는 거죠. 이걸 너무 사랑해서 저지른 비극이라고 한다면 병명인 것 같고, 문제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려

고 해요.”

그를 만난 건 3년만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여름, 첫 클래식 앨범 발매와 첫 리사이틀을 앞두고 있던 앳된 청년이 그 사이 뉴욕 카네기홀에서 리사이틀을 열만큼 성장했고, 아기가 빠가 됐다.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클래식과 대중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소신은 변함없다. “제 팬 중에 정말로 클래식에 빠진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이번 오페라도 그런 맥락이죠. 사실 얼마 전 서울시립합창단 메시아에서 솔리스트로 쫓는데, 그때는 섭외된 게 아니라 공개오디션에 회사 몰래 지원해서 파낸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고 클래식과 대중을 제가 데려와서 다리를 열심히 놓고 있는 중입니다.(웃음)”

유학 시절부터 로마이었던 카네기홀 데뷔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팬덤의 힘이란다. “팬들이 소문을 많이 내줘서 전석매진까지 됐는데,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어요. 공연 전날 소리가 전혀 안나오길래 약을 잔뜩 먹고 잠만 잤죠. 다행히 당일엔 좀 괜찮아졌는데, 마지막 한 곡이 남았을 때 목이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슬픈 곡이라 오로지 북반치는 감정만으로 울면서 불렀죠. 그런데 오히려 팬들은 그걸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뭐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올가를 오페라계는 대작이 많다.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투란도트’ 빅메치에 월드스타가 몰려오는 등, 한국 시장이 전에 없이 뜨거워졌다. “외국에 있을 때 교수들이 늘 아쉬워하는 게 정말 재능있고 스타성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만둔다는 거였어요. 오페라시장이 침체되니 노래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걸 깨닫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 좋은 가수들이 안 나오고 오페라는 점점 더 침체되는 악순환인데, 한국은 제 포레만 해도 좋은 프로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페라의 미래도 한국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유주현 기자



로마 검투사의 세계를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로마 황제 콤모두스(호아킨 피닉스)와 검투사 막시무스 데시무스(러셀 크로우). [중앙포토]

▶ 6면 ‘검투사’에서 이어집니다

한때 제국의 명운을 갈랐던 전투가 시민의 구명거리로 전락했다. 김나지움에서 싸우고 자란 로마 정신은 사라졌다. 정신의 소멸은 공동체의 소멸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다.

김나지움은 독일에서 학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체육관을 뜻한다. 필자는 한국체대에서 매학기 첫 시간에 신입생을 상대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 “체육은 교육의 한 체제다. 교육의 목표를 지덕체(智德體)의 함양에 두지만 이 순서가 서열은 아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처럼 본질이 같다.” 여기엔 함정이 있다. 운동만 잘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오해. 운동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도 뿌리는 같다.

“운동하면 공부와는 벽을 쌓는다는 인식 때문에 부모가 운동하겠다는 자녀를 말리는 상황이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학교 체육을 정상화하고 인권침해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정용철 서강대 교수)

“운동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진입단계에서부터 운동과 학업 중 선택의 기로에 선다. 저출산이 심각한데다 스포츠의 저변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생들부터 학습권 보장이 안 되면서 스포츠 저변은 엉망이 됐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학습권=최저학력제’는 합의되지 않은 정의다. ‘최저학력’이라는, 있지

도 많은 용어를 사용하며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학생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학습해야 최저학력에 도달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박재현 한국체대 교수)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다. 한국체대만 해도 계절학기·집중수업·이동수업 등 학생 선수들을 위한 제도가 완벽하다. 그러나 제도가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중 학습,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강도 훈련, 전지훈련과 대화... 학생 선수들은 무시가 아니다.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그들의 고통을 목격한다. 체육대학을 지금처럼 운영하려면, 학생 선수를 위한 강좌와 과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공부선수와 운동선수에게 같은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학생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에 전념했다. 그 결과 얻어난 기량과 성과가 진학과 취업의 밑천이 된다. 학교는 검투사훈련소, 경기장은 콜로세움일 수밖에 없다. 현실은 검투사의 시대보다 엄혹하다. 경기에 진 콜로세움의 검투사도 목숨은 지켰다. 현대의 검투사들에게 패배는 일시적으로라도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 ‘낙오’ ‘도태’ ‘방출’... 운동을 포기하고 합숙소를 떠난 학생들의 방황은 길고 위태롭다. 학교에서라도 패배는 또 다른 기회여야 한다. 학교가 지켜야 할 것이 많다.

허진석 한국체육대 교수

허진석 스포츠 기자로 30여 년간 경기장 안팎을 누볐으며 중앙일보 스포츠부장을 지냈다. 2023년 한국시문학상을 수상하고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주택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2024 여름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주소	기간	세입자
★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케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성형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 메가쵸킹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0월

구인

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구인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3+1/2

문의

301-768-1240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위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모집
- 업무: 현장 직원관리 및 입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경력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자동차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룬델빌 샴펜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 렌트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 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싱글홈,큰방,욕실,유포,인터넷,가구,금연, 301-648-2422

▶▶단독주책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욕실,거실등,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영주권스폰서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홀세일창고에서오전: 고객오더접수오후:노던버지니아지역및메트로지역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rth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원 0명 -ERP/Excel 유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License소지자)/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중앙일보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풀타임 직원모집/학생및 유/무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 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철펠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철펠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주방보조/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서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르)
영주권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철펠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철펠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깅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깅,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철펠리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 PM-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맛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홀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유, 와쉬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홀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화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뷰,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 렌트

센터빌 \$800/유틸리티 포함. 던킨도넛 근처, stone road 옆에 위치함. 703 762 6759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로테 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원함 /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원함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 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타운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뜰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틀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 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원함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욕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원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와완수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 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리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핑물, 1,500 스퀘어, 버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사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와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매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틱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싯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화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일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케비넷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백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단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집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파워 폴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LVT (Luxury Vinyl Tile) VCT (Vinyl Commercial Tile)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토지 개간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전 후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Fred: And how’s your daughter Kim doing?
프레드: 근데 그 집 딸 김은 어떻게 지내?
Martin: She’s great. She starts teaching elementary school next week.
마틴: 잘 지내.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거야.
Fred: Really? She’s going to have her hands full.
프레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겠네.
Martin: I know.
마틴: 그렇지.
Fred: Teaching elementary school can be tough.

프레드: 초등학교서 가르치는 거 힘들텐데.
Martin: But she loves children. She has a way with them.
마틴: 근데 김은 애들을 좋아해. 애들을 잘 다루고.
Fred: That’s true. They do listen to her.
프레드: 맞아. 애들이 김 말은 잘 듣더라.
Martin: I think she’ll do fine.
마틴: 잘 할 거야.
Fred: Tell her I said hello.
프레드: 김한테 안부 전해줘.

(one) has a way with (one or others); (누구를) 잘 다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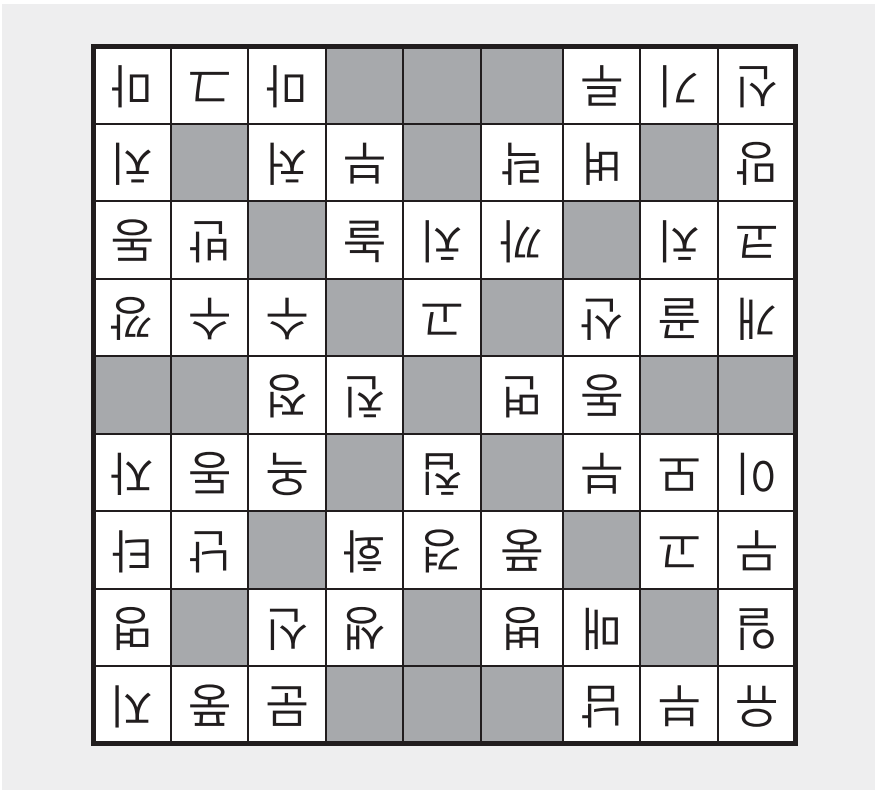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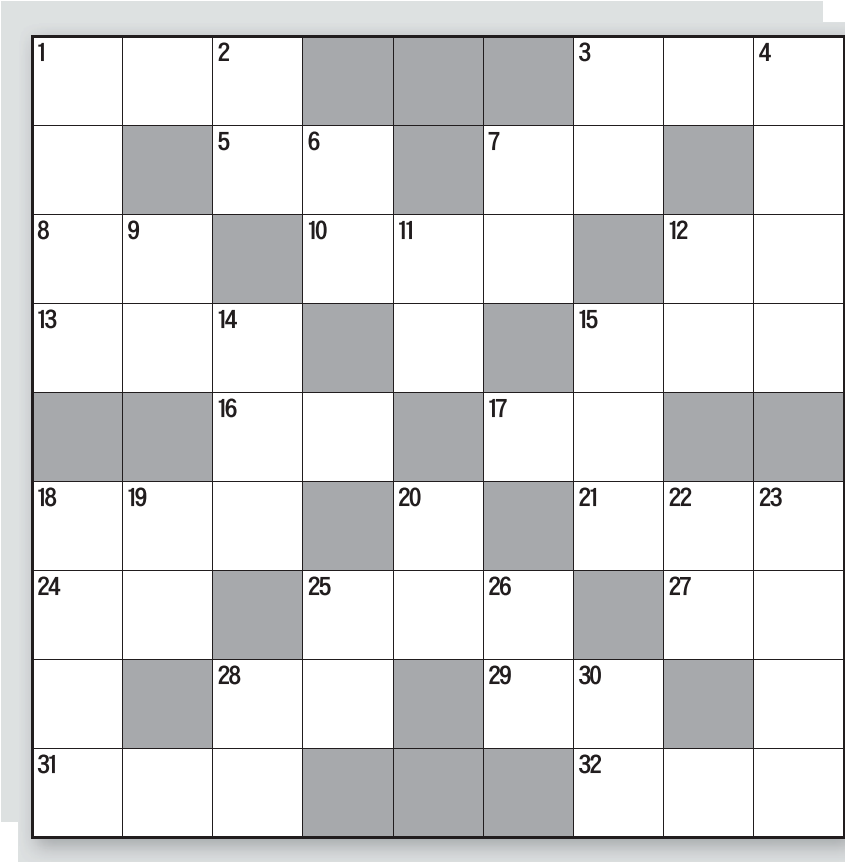
Fred is talking to Martin at lunch ...

(프레드가 마틴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

Martin: I will.
마틴: 그렇게.
.....
기억할만한 표현
▶ have (one’s) hands full: 매우 바쁘다. 어려운 일을 하다.
“I babysat for my sister’s three children. Did I have my hands full!”
(나는 누이의 세 아이를 보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 (something) is tough: 무엇이 어렵다.

“That driver’s test was tough. I had to take it two times.”
(저 운전면허 시험은 어려워요. 전 두 번째 붙었어요.)
▶ (one) will do fine: 잘 할 겁니다.
“Your son will do fine in college. Don’t worry about him.”
(아드님은 대학에 가서 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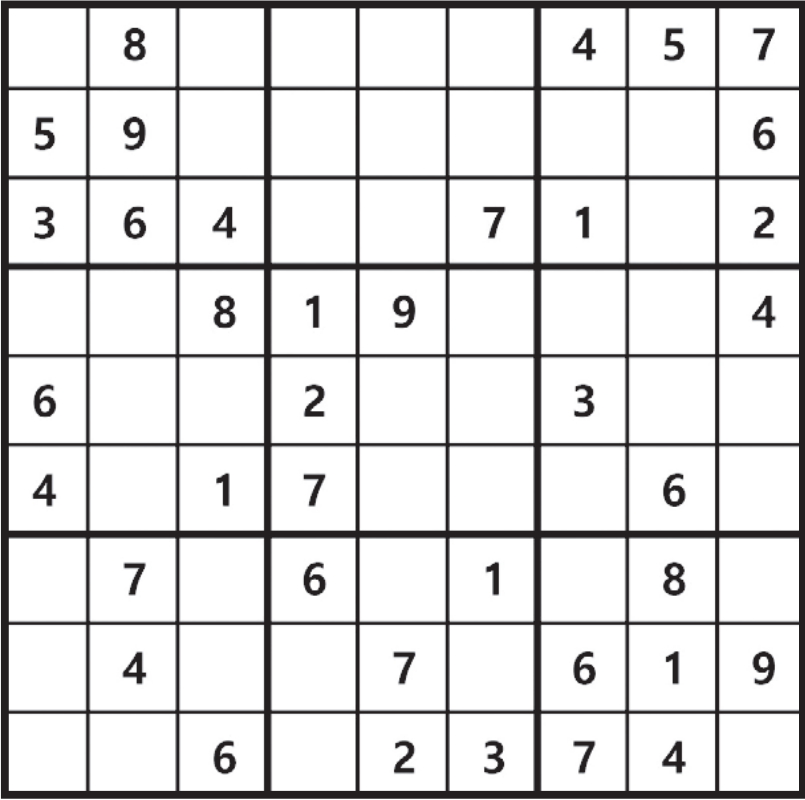
낱말퀴즈



가로열쇠

(1)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남자 (3)문뜰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바른 종이 (5)아가리가 좁고 어깨는 넓으며 밀이 훌쩍하게 생긴 병 (7)어른의 생일 (8)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10)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12)함부로 마구 때리고 침 (13)어머니의 자매의 남편 (15)옥 같이 잘생긴 사내아이 (16)다람쥐, 개구리, 뱀은 겨울이 되면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죠 (17)시집간 여자의 본집 (18)기암괴석의 산체가 빼처럼 드러나는 겨울의 금강산 (21)수수나 옥수수 줄기의 겹질을 벗긴 심. 할머니 안경은 돌보지 않겠네 동생 안경은 ~ 안경/돌이 돌이 마주 앉아 글을 읽지요 (24)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25)바다의 수평선에서 석양을 받아 번득거리는 빛 (27)어떤 작용에 대하여 그 반대로 작용함. 좌에서 우로 ~ 시작, ~ 간에 노래한다. 노래는 진짜사나이 (28)땅으로 떨어지는 번개 (29)불도를 깨달은 성인 (31)사막에서 없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현상 (32)땅속에 암석이 고온으로 가열되어 녹아 있는 것

스도쿠



세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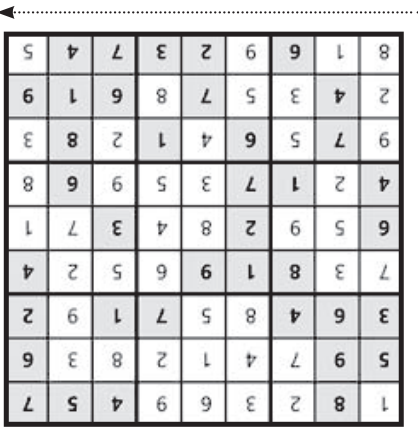
(1)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음 (2)오누이 (3)살갓을 바늘로 찔러 새긴 글씨나 그림 (4)투수의 대타로서 타순에 넣은 타격 전문의 선수 (6)바람을 막거나 무엇을 가리기 위하여, 장식용으로 방안에 둘러치는 물건 (7)살아 있는 화초에서 꺾은 진짜 꽃 (9)아버지의 누이 (11)일 년 중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날. 오늘이죠 (12)기물 파위를 부수며 무질서하게 마구 행동함. ~을 부리다 (14)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15)옥이 나는 곳에서 나오는 샘물 (18)잘못하여 명예나 지위를 크게 망침. □□망□ (19)머리. 머릿골. 나는 이사 문제로 한동안 ~가 아팠다 (20)누에가 실을 토하여 제 몸을 싸서 만든 집 (22)물을 담아 꽃을 꽃거나 괴석 파위를 넣어 두는 그릇 (23)예전에, 여자들이 입던 짧은 치마. 흰색 긴 저고리에 검은색 ~는 그 당시 신여성들의 전형적인 옷차림이었다. □□치□ (25)벼, 보리 파위의 낱알 겹질에 붙은 갈끄러운 수염. 까끄라기 (26)흥부의 형 (28)먹을 가는 데 쓰는 문방구 (30)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알짜 세택소 에이전시

월매 26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샌버너드 좋은매물
주인은퇴, S. Riverside CA 지역
(213)249-1893 샘킴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목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과의사 모심

최고의 치과시설을 보유한 병원
(Texas, El Paso)
● 텍사스 면허 소지하신분 ● 최고의 연봉으로 대우
● 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문의: (551)579-0968 mgff1770@gmail.com

참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잠 못 이루는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레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